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3
2012 March Vol. 243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최고의 작품! 화려한 귀환!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 4대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무대가 4월 부산에서 펼쳐진다.

미스사이공의 저력! 세계를 감동시킨 완벽한 드라마!

'뛰어난 가창력, 연기, 춤 한마디로 예술의 결정판', '뮤지컬의 기본을 잘 보여준 작품' 등 관객들의 리뷰에서 볼 수 있듯 모성애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뮤지컬을 당당히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1970년대 베트남전을 소재로 1989년 런던에서 개막한 작품이지만 여주인공 '킴'의 사랑이 여전히 눈부시게 젊고, 눈시리게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무대위의 캐딜락, 첨단 3D 영상의 헬기씬!

베트남전 당시 운행되었던 실제 캐딜락을 무대위로 옮겨놓은 이번 무대는 미스사이공의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공 '엔지니어'의 "아메리칸 드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다. 또한 미스사이공의 핵심 장면인 헬기씬은 첨단 3D영상으로 생생하게 처리됐고, 무대 비주얼을 강화한 베트남과 방콕 거리는 '킴'과 '크리스'의 러브스토리를 한층 리얼하게 보여준다.

출연

다른 시대의 희생자, 기회주의자 엔지니어 · 김성기, 임춘길
때묻지 않은 용기의 여인 킴 · 김보경, 임혜영, 이하나
인간적인 고뇌의 미군 크리스 · 마이클 리, 아건명
미국의 소박한 양심, 존 · 김우형

Review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호소력 짙은 사랑, 객석을 울리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 매일경제
'이젠 우리도 이만큼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내는구나'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숨죽인 객석...이토록 아련한 선율의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다니 - 중앙일보
마지막 총성, 관객들도 감전된 듯 음악과 드라마의 숨이 멎을 듯한 조화 - 헤럴드경제
미스사이공은 우리에게 육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화려한 무대장치, 3D 헬리콥터씬은 눈길을 끈다 - 세계일보

2012년 4월 5일 ~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3:00, 7:30 / 일요일 오후 2:00, 6:30

4월 11일(선거일) 오후 3:00 / 월요일 공연 없습니다



미스 사이공

미스사이공의 기록들

- * 1989년 런던 초연 후 지금까지 26개국 317개 도시에서 13개 언어로 22,000여 회가 넘는 공연을 기록
- * 3번의 토니상을 비롯한 33개의 주요 극장상을 수상
- * 1991년 미국 브로드웨이 개막 전 3,700만 달러의 예약 티켓이 팔린 이변으로 기네스북 등재
- * 런던에서 처음 음반 발매시 3일만에 150,000장을 판매하며 'Golden Disc' 독일 캐스팅으로 발매한 음반은 250,000장을 판매하며 1998년 'Golden CD' 로 선정
- * 브로드웨이 역사상 7위의 흥행을 기록
- * 1,300:1의 오디션 경쟁률로 기록 갱신

한장의 흑백 사진에서 뮤지컬의 신화가 탄생했다.

사이공이 몰락해 가기 몇 주전, 미국에서의 희망찬 삶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떠나 보내고 있는 한 베트남 여인의 사진이 부브리와 쉰버그에게 강한 영감을 주면서 오페라나 비부인의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뮤지컬 미스사이공으로 탄생된다!!



주 최 | 부산광역시 KNN 부산일보사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 예술기획성우
예 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 문 의 | 1599-1980 / 051-607-6058 goconcert.co.kr
티 켓 |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7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관람대상 | 15세 이상 관람가(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지도요함) *부산문화회관 정기(유료)회원은 1599-1980 전화 예매시 할인적용

을숙도명품콘서트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지휘 박광식



Vn. 미하일 가스디네르
차이코프스키음악원 교수

Shostakovich Revolution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BWV1052R - 바흐
Symphony No.5 Op.47 「혁명」 -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의 「혁명」

2012. 3.15(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 주관 (사)티.아이.에프.오케스트라 / 문의 220-5805

후원 : 부산인물방송 BS 팟부산 Homeplus 장림점 사이인티브뉴스 www.saha1news.co.kr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팟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본 공연은 초등학생이상부터 입장가능합니다"

BS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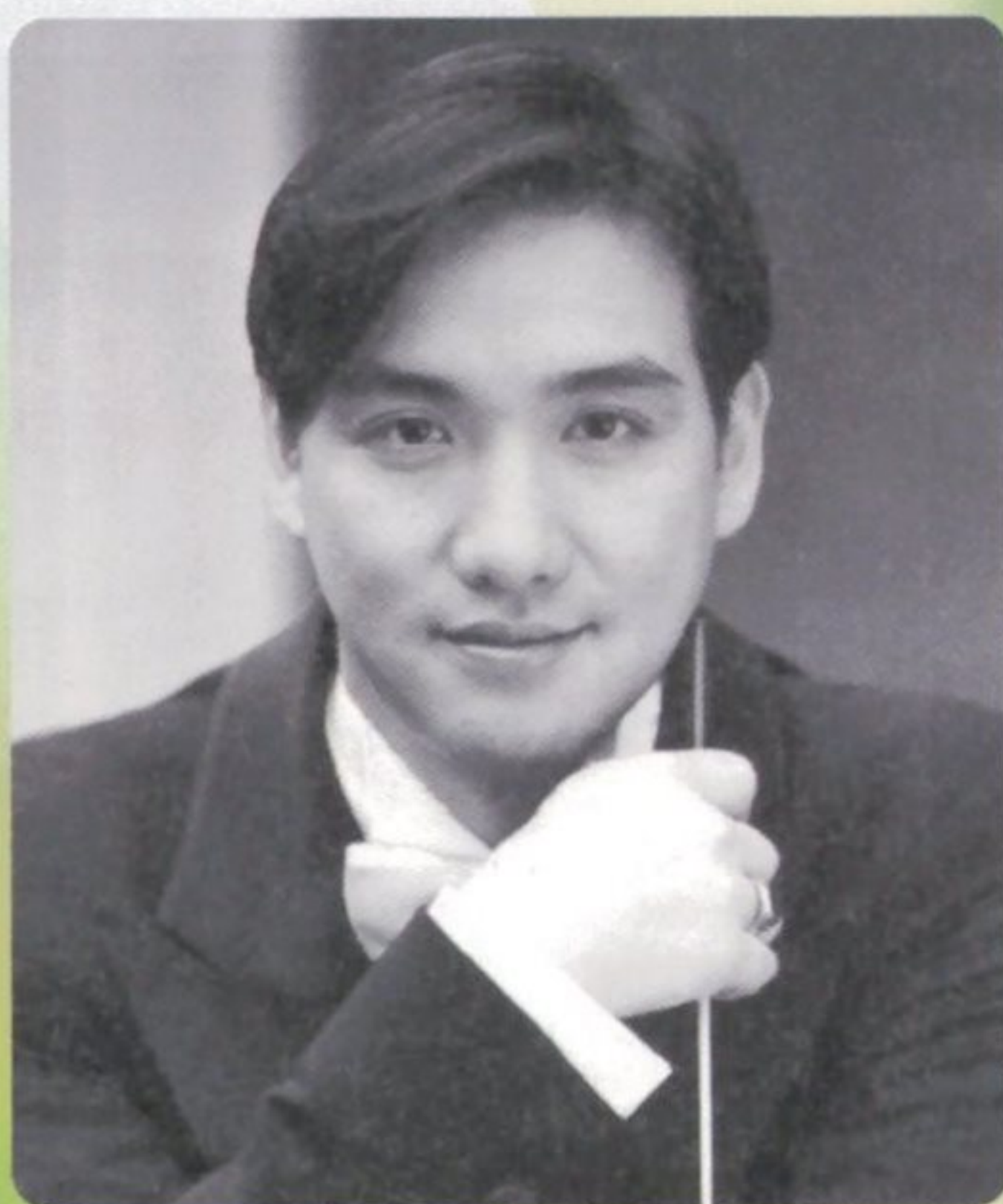
제33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2년 3월 26일 (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 지휘: 이종진
(충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 피아노 이진성
(경성대, 동의대, 인제대 외래교수)

연주곡목

- | | |
|---------------------|--|
| 베르디
G. Verdi |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Opera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
| 리스트
F. Liszt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124
Piano Concerto No.1 in E ^b Major, S.124 |
| 베를리오즈
H. Berlioz | 환상 교향곡 다장조, 작품14
Symphonie Fantastique in C Major, Op.14 |

주최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KWANG 조광페인트 BS 부산은행 Bⁿ 비엔그룹 Bⁿ 대선주조

■ 티켓: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학생 50%할인) ■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프로코피예프 Symphony V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n



피아노 최지은

PROGRAM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

2012. 3. 23 | 금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희망을 노래한다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 부산문화회관장 최동환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침묵을 들어라 _ 박세욱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③ | 괴테와 리스트의 <파우스트> _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로시니 ① | 영원한 부포(BUFFO), 로시니 _ 김종천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③ | 단원이 학인가? 학이 단원인가?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국내 최초 분청도자관 김해분청도자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 32 리뷰
- 34 프로그램 가이드
- 52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8 나의 애청음반 _ 박성희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100자 토크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3월호 통권 243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2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ggad.co.kr



지휘자 나영수

부산시립합창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나영수>와의 만남-우리의 노래’

일 시 : 3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051)607-3141~2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희망을 노래한다



1972년, 부산시립합창단이 시립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되었고, 이듬해 초대지휘자 임종길 지휘로 왕자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이후 1973년 국립합창단, 1978년 서울시립합창 등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인 전문합창단 시대가 열렸다
현재는 전국에 55개의 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다

TV 오락프로그램의 인기로 합창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학창시절 풋풋한 기억 한 칸에 남겨두었던 합창단 활동을 조용히 추억하며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자극을 받는 이들도 있다. 지금만큼 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가 있었을까.

1972년, 전국시립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된 부산시립합창단이 2012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월 16일 박광하의 지휘로 지난 40년간 부산시립합창단을 성원한 부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음악회'를 가진 부산시립합창단은 3월 13일, 한국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나영수 선생과 함께 우리가곡으로 감동과 감사의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10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을 거쳐 간 역대 단원들과 함께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역사는 우리나라 합창 문화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들어와 교회를 중심으로 합창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쉽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본격적인 합창활동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 지방마다 노래 부르는 국민개창운동이 시작되면서이다. 1972년, 부산시립합창단이 시립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되었고, 이듬해 초대지휘자 임종길 지휘로 왕자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이후 1973년 국립합창단, 1978년 서울시립합창 등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인 전문합창단 시대가 열렸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초대 지휘자 임종길을 시작으로 2대 지휘자 강기성, 3대 지휘자 이규택, 4대 지휘자 김광일, 5대 지휘자 유봉헌, 6대 지휘자

이상열, 7대 지휘자 김강규와 함께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94년 시립단체로는 처음으로 CD출반을 기획, 제 1집 '봄을 위한 환상곡'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 2집 '한국가곡과 민요창작곡 모음' 제 3집 '한국가곡과 민요모음' 제 4집 '한국창작곡 모음' 제 5집 '성가합창곡 모음' 제 6집 '헨델과 메시아' 제 7집 '한국가곡합창곡집' 제 8집 '부산창작합창곡 모음'을 출판해 한국 최고의 전문합창단으로 진가를 보여주었다.

또, 1997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가진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연, 2008년 독일 4개 도시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부산시립합창단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오클랜드 공연에서는 한국이민사에 처음으로 2,000여명의 현지 관중들이 참여하여 열광적인 커튼콜을 10여회 받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현재 김강규 지휘자 후임으로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40주년 역사를 새롭게 쓸 제 8대 수석지휘자를 공모 중이다. 세계합창올림픽이 열린 합창의 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아름다운 하모니, 희망의 하모니를 선사하기 위해 2012년 전 단원들이 땀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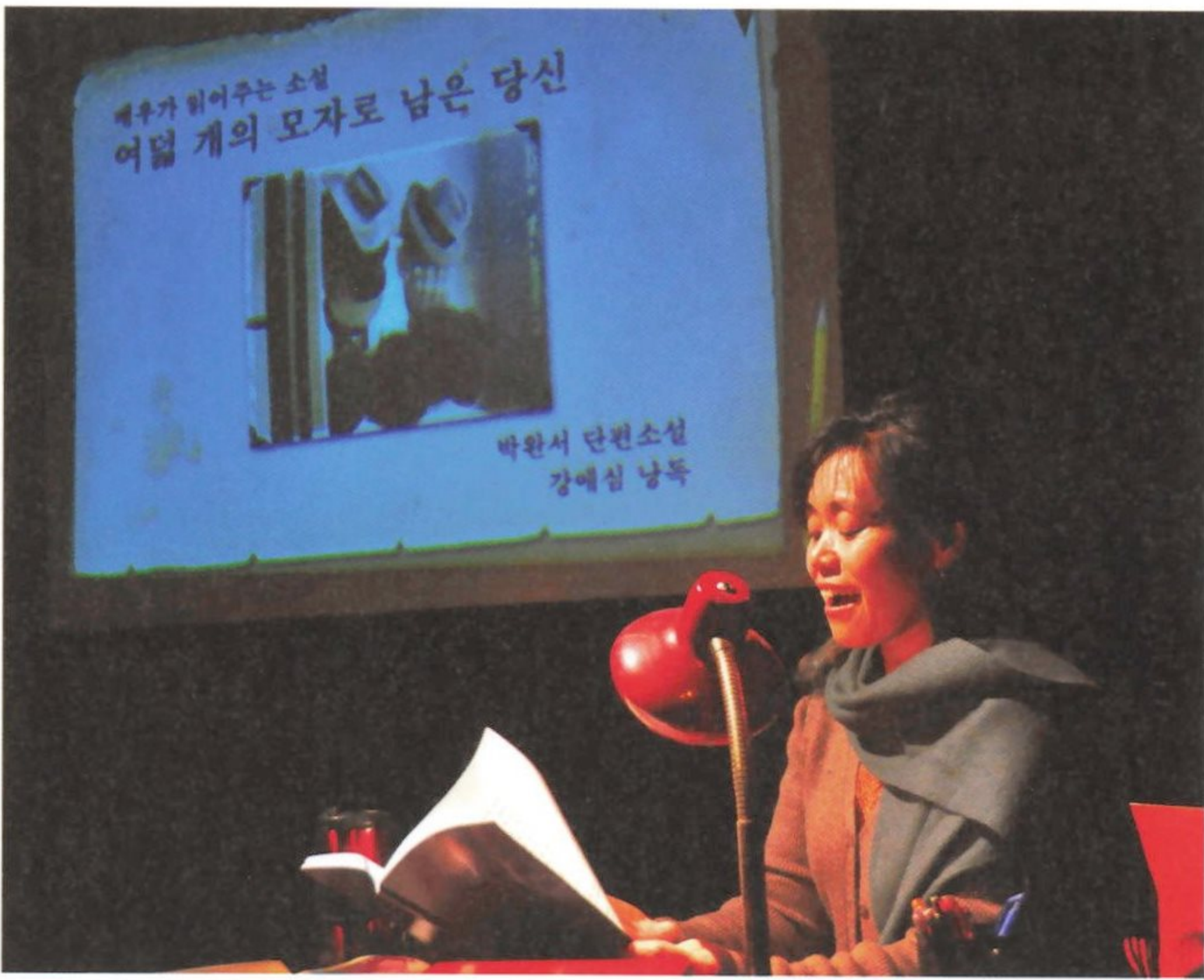


Preview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안녕, 엄마’

| 3월 8일~10일 목-금요일 오전 11:30,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강애심 낭독 박완서 단편소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 ● ● 부산시립극단이 새로운 연극적 재미를 담은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로 2012년 첫 무대를 연다.

부산에서는 다소 생소한 낭독공연은 완전한 무대장치나 의상, 조명 등을 다 갖추지 않은 채 배역을 나누어 맡은 배우들이 대본을 들고 한 편의 연극을 들려주는 공연형식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널리 자리 잡은 공연의 한 형식이다. 주로 극작가의 신작 희곡을 발표하거나 외국 의 새로운 희곡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무대의 여백을 관객의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독특한 공연으로 사랑 받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무대에서 '조선형사 홍윤식'으로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성기웅의 연출로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과 제9회 요미우리 연극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인 나가이 아이 작 '안녕, 엄마' 두 작품으로 단편소설과 희곡을 음미해본다.

박완서의 단편소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이야기를 과장없이

담담하게 전해주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죽음을 선고받고 그동안 지내 온 일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했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감성과 개성이 넘치는 연기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연극협회 사랑연극제 연기상,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 등을 수상한 배우 강애심의 낭독으로 들려준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배우'가 소설을 읽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낭독을 듣는 즐거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미와 감동이 있다. 특별히 주부 관객들을 위해 마련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은 작가와 독자(관객) 사이에 무대와 음악, 영상과 배우가 끼어들어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를 개인적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는 교감과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켜준다.

'안녕, 엄마(こんにちは、母さん)'는 중년의 외아들 아키오와 오랜만에 찾은 활기찬 생활에 새 인생을 구가하는 노년의 어머니 후쿠에,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독특한 애인 나오부미. 세 사람을 통해 경제번영 끝에 불경기를 겪게 된 일본인들이 되돌아보는 노년과 중년의 아프고도 유머러스한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이 원작의 감동을 풀어낸다.

소설 낭독공연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3월 8일-9일 평일 오전 11:30

- 작 : 박완서 연출 : 성기웅
- 낭독 : 강애심

희곡 낭독공연 <안녕, 엄마>

3월 8일-10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 작 : 나가이 아이 • 번역 : 박혜성 • 연출 : 성기웅
- 낭독 :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 균일 7,000원(두 작품 관람 1만원)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I

2012 신춘음악회

|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후앙 이



피아노 송유진



바이올린 오지은



소프라노 강민성

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음악공부를 한 후 2010년 금호아트홀에서 가진 귀국독주회를 통해 '큰 스케일과 음악성을 가진 무서운 신예 피아니스트의 등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2부 무대에서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경쾌한 왈츠곡으로 새 봄의 환희를 노래한다. 봄날 지저귀는 새소리

● ● ● 생동감 넘치는 새봄의 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신춘음악회가 3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09년 세계적인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의 부지휘자로 발탁된 중국의 신예 지휘자 후앙 이가 지휘하고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송유진과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 소프라노 강민성이 협연자로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봄날에 어울리는 경쾌한 곡으로 희망찬 봄소식을 전한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지휘자 후앙 이는 2006년 중국중앙음악원에 입학한 후 2010년 상위 10명의 우수 학생에게 주어지는 중국중앙음악원의 CCMC 장학금을 수여받아 현재는 중국중앙음악원 대학원 과정에 수학중이다. 후앙 이는 그동안 상하이교향악단과 중국오페라단, 무용극장 교향악단, 중국청소년교향악단을 수차례 객원 지휘했다.

왈츠가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과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을 들려준다. 정교한 기교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연주법으로 '피아노 음악의 파가니니'라고 불리는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이다. 차세대 유망 피아니스트로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송유진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피바디 음

처럼 밝고 가벼운 왈츠곡으로 느긋한 봄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봄의 소리', 천둥과 번개를 폴카 리듬으로 표현한 '천둥과 번개' 폴카, 수많은 왈츠곡 중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사랑받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들려준다.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은 아름다운 선율과 프랑스적인 세련미를 갖춘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을 들려준다. 따뜻한 감성과 화려하고도 열정적인 음색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졸업하고 독일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오지은은 Sieg 피아노트리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또다른 협연자 강민성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최연소 수석졸업)을 졸업하고 금난새 청소년해설음악회, 아산오페라단 10주년 기념 청소년해설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베르디 오페라갈라', 예술의전당 콘서트 '가을의 향기',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와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강민성은 이번 무대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아르디테의 '입맞춤'을 들려준다.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1회 정기연주회

2012. 신춘음악회 - 국악, 봄을 품다

|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김철호



가야금 신명숙



춤 하연화



춤 박세준

● ● ●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가락과 춤으로 전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1회 정기연주회 '2012. 신춘음악회 - 국악, 봄을 품다'가 3월 22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 가야금 명인 신명숙의 가야금 연주, 하연화, 박세준의 춤이 함께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는 새로운 창작음악을 통해 우리음악의 흥과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신춘음악회인 만큼 생동하는 봄의 역동성과 환희,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국악창작곡들을 선곡,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봄을 전한다. 첫 무대는 봄의 역동성과 경쾌한 리듬을 표현한 이준호 곡 '춘광여정'으로 연다. 만물소생의 근원인 대지의 풍성함과 자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춘광여정'은 봄을 맞아 밖으로 나오라 손짓하는 새 봄의 유혹과 아름다움에 취한 춘심(春心)을 표현한 작품으로 다시 만난 봄빛의 환희를 우리가락의 신명을 담아 들려준다.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경남무형문화재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수자 하연화와 춤패 배김새 단원 박세준의 춤이 춘광여정과 함께 펼쳐진다.

이어지는 곡은 회화적 이미지의 아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강상구 곡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푸른 자연을 노래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조원행 곡 '청청(淸淸)'. 부산초연곡인 '청청'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소리들을 관현악에 담아 빠르고 느림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2부 무대는 강태홍류의 가야금산조로 연다. 오랜만에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신명숙은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8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장으로 강태홍 가야금 산조의 맥을 잇고 있다.

신명숙이 연주하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신비스럽고, 담백한 남성적인 가야금 산조로 난해한 기교가 많아 기교파의 총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계면조를 줄이고 우조와 강산제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호쾌하고 온화한 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는 부산대학교 황의중 교수가 협주곡으로 편곡,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아름답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자연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임준희 곡 관현악 '섬'으로 장식한다. '섬'은 대부도 누에섬 등대의 풍경을 보고 떠올린 이상범의 시조 '섬'의 감명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바닷길 노를 저으며 나아가 갈 때 보이는 섬들을 통해, 삶의 고독과 열망, 자연과 동화된 삶속의 희노애락 등이 국악 관현악으로 펼쳐진다.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7회 정기연주회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II

프로코피예프 Symphony V

|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리 신차오
피아노 최지은



● ● ●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프로코피예프의 대표적 교향곡이자 현대음악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제5번으로 제 477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최지은이 협연한다.

‘섬세한 감정표현과 휘몰아치는 열정으로 청중을 집중시키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미국 피바디음대에서 석사학위와 전문연주자과정 디플로마를 받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전액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소년한국일보콩쿠르, 제 39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제 18회 국제친선학생음악대회,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며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받은 최지은은 서울예고 재학시절 한국음악콩쿠르 피아노부에서 금상을 수상, 음연주최 젊은이의 음악제에서 연주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시에는 음연콩쿠르, 한국쇼팽콩쿠

르 입상, 부산음악콩쿠르 피아노부 1위 및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우수 콩쿠르를 석권했다.

미국 유학중에도 수차례 독주회 및 앙상블 무대를 통해 탄탄한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던 최지은은 2009년 귀국 후 한국초연으로 Martin Matalon의 작품을 TIMF 앙상블과 협연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앙상블BE의 멤버로 통영국제음악회 기간동안 아시아 태평양 국제현대음악제 무대에서 연주했다. 최지은은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최지은은 프랑스 작가 로망 롤랑이 ‘걸작의 숲’이라 칭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를 들려준다.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 하여 부쳐진 ‘황제’는 때때로 교향곡을 연상케할 정도로 구성이 웅장한 곡으로, 베토벤이 남긴 피아노 협주곡 5곡 중 여성적이면서도 우아한 제 4번과 함께 자주 연주된다. 연주시간 40분.

2부에서는 교향곡 제 1번, 7번과 더불어 명곡으로 꼽히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 5번을 들려준다. 러시아 혁명의 격동을 피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로 망명했던 프로코피예프가 18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러시아로 돌아와 1944년 작곡한 교향곡 제 5번은 1945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축하하며 러시아 전국에 생중계를 통해 초연되었다. 1943년 제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무겁고 침통하게 그려냄으로써 혹평을 받았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8번과 달리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 5번은 전체적으로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이다. 프로코피예프 스스로가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곡’이라고 밝혔듯이 날카로운 색채감과 흐르는 듯한 서사가 조화된 곡으로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풍부한 서정성이 돋보인다. 연주시간 45분.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 부산연극제 개막작 인천시립극단 '햄릿'



● 제30회 부산연극제 포스터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 2012 제 30회 부산연극제

| 3월 29일(목) ~ 4월 16일(월)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 ● ● 부산연극제 최대의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2년 무대가 3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부산연극제는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를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연극제는 지난해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자유바다를 비롯해 극단 에저포, 극연구집단 시나위, 극단 누리예, 창작극연구소 몽키 프로젝트, 극단 도깨비,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단 세진, 극단 하늘개인날, 극단 맥 등 부산지역 10개 극단이 경연부문에 참가, 6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 참가 티켓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지난 2005년 경연참가작을 창작초연작으로 제한한 후 가장 많은 경연팀인 10개 팀이 참가해 연극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올해 참가작 중에서는 지난해 부산연극협회가 주관한 전국창작회곡 공모전에서 당선된 2편의 작품도 선보이는데, 특히 은상을 받은 이경진의 '개 짚는 날'은 극단 세진과 극단 누리예가 동시에 선택, 두 극단이 보여줄 차별화된 무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연작 외에도 이번 부산연극제에서는 인천시립극단의 개막축하공연 '햄릿'과 5편의 자유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자유참가작으로는 극단 동그라미 그리기의 '우렁각시',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여행을 떠나요!',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의 '청춘정담', 모리문화예술원의 '희망콘서트-놀이',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의 '봄의 향연' 등 다양한 무대가 선보인다.

이밖에 연극제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제 5회 부산시민연극제(4월 4일~7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와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사진전시회(3월 30일~4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로비), 부산연극정보관 운영(4월 1일~14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개막축하 공연작

인천시립극단 '햄릿'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3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구라는 보편성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 고전 '햄릿'을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경험을 투사해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작 : 셰익스피어 •연출 : 이종훈

경연작

극단 에저또 '공기인형'

4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4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자살에서 구해진 소녀를 평생동안 그림으로 그리며
실제의 사람인양 대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심장이 없는 가상의 창조물로
치유하려는 고독한 현대인의 심리를 그린 창작극.
•작 : 김지연 •연출 : 최재민

극연구집단 시나위 '여인화'

4월 2일~3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권력을 위해 스승과 동료들까지 배신한 태수의 간계
에 맞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연인 망이와 연화의 사랑을
그린 시대극 '여인화'.
•작 : 김재환 •연출 : 반필우

극단 누리에 '개 짖는 날'

4월 4일~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제 4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은상작으로, 가족의 유
일한 돈벌이 수단인 개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
족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을 만
끽할 수 있는 창작극 '개 짖는 날'.
•작 : 이경진 •연출 : 강성우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여명의 사면'

4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구 멸망 후 태양까지 자취를 감춘 암흑천지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2천년 후 예전의 지구로 돌아가
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여명의 사면을 찾아나서는데...
지구의 종말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결국 인
간의 손으로 다시 복원되는 지구를 그린 환타지 뮤
지컬 '여명의 사면'.
•작·연출 : 오리라

극단 도깨비 '꼬까비'

4월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한 권
력자의 집착으로 가려진 그릇된 사랑을 통해 참사랑
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창작극 '꼬까비'.
•작 : 김익현 •연출 : 최광욱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피는 꽃'

4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계급이 다른 세 명의 여인이
펼치는 비극적 사랑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역사
극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피는 꽃'.
•작 : 최은영 •연출 : 이선주

극단 세진 '개 짖는 날'

4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극적인 장치를 적극 활용해 이야기의 감
동을 전해준다.
•작 : 이경진 •연출 : 김세진

극단 하늘개인날 '그분이 오신다'

4월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친일행위라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주인공의 지워
지지않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그린
창작극 '그 분이 오신다'.
•작 : 김문홍 •연출 : 곽종필

극단 자유바다 '나무목 소리탁'

4월 13일~14일 **금·토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끝없
이 치솟는 분노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주인공을 통
해 인간의 업과 인연을 그린 창작극 '나무목 소리탁'.
•작·연출 : 정경환

극단 맥 '대양 07호'

4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침몰해가는 배 선실에 남은 사람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극한의 공포에서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코
믹하게 그린 창작극 '대양 07호'.
•작 : 김영근 •연출 : 이정남

자유참가작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우렁각시'

3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시민회관 소극장
우렁각시와 결혼을 하게 된 주인공이 못된 사또를 혼
내주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가족극 '우렁각시'.
•작·연출 : 오계영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3월 29일(목)~4월 3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자폐증을 지닌 재호와 정신신체장애를 가진 수철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따듯
한 시선으로 그려낸 창작극 '여행을 떠나요'.
•작·연출 : 김동민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 '청춘정담'

4월 6일~8일 **수·금요일** 오후 7:30,
9일~10일 **토·일요일** 오전 11:4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과 사랑이 끝나가는 연인, 사
랑을 했던 연인 등 세 커플을 통해 일상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창작극 '청춘정담'.
•작 : 김효진 •연출 : 도정우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4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흥겨운 타악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관객과 더불어 두
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
•음악감독 : 정동훈

라운제나 하모니카 앙상블 '봄의 향연'

4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고향과도 같은 추억의 하모니카 선율을 선사해온
라운제나 하모니카 앙상블이 들려주는 봄의 향연.
•프로그램
포스트 명곡메들리, 대니보이, 숨어우는 바람소리,
해변의 여인, 베사메무초, 비목, 들장미, 영화 OST
메들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해운대 엘레지, 꽃밭
에서 등 수곡
•음악감독 : 박기국

반갑습니다

부산문화회관장 최 동 환

“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시민들을 위한 친숙한 문화 휴식 공간 조성 ”

2012년 시작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장의 중책을 맡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동환 관장. 30년 공직 생활 중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만 10년을 근무한 문화 행정통으로 소문난 그이지만 부산문화회관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고민이 많다.

부산문화회관장으로 근무한지 한 달 남짓. 최동환 관장은 부산문화회관을 점검하고 지도하던 부서에서 가졌던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부산문화회관의 당면 현안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부산문화회관이 안고 있는 어려움, 예술단원들과 직원, 스태프들의 고충을 잘 몰랐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부산문화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부산문화의 본당이 될 수 있도록 부산문화회관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동환 관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준 높은 공연 활동’이다. 극장 시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중극장과 소극장 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지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활동은 예산만으로 풀어 낼 수 없는 큰 과제다.

부산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대형 기획공연 유치시 지역 기획사들의 영역 침범이라는 반발이 생기게 마련. 그러나 최동환 관장은 수익이 적어도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 또한 부산문화회관의 임무인 만큼 지역 민간 기획사의 소자본으로 유치하기 힘든 ‘미스 사이공’과 같은 대형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기획공연 외 부산문화회관 최고의 인적 자원인 부산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해 부산의 정서가 담긴 공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인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처럼 예술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획 무대는 물론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와도 협의해 대규모 공연을 기획, 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가 다양한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또 예술단의 상황을 잘 모르고 쇠신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원들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단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관장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립예술단이 정체성 확립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의 사랑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정상급 연주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최동환 관장은 단원들과 힘을 모아 올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

새봄, 본격적인 공연 시즌을 앞두고 포부를 밝힌 그의 얼굴에 어느새 봄꽃이 활짝 폈다.



새롭게 시작한 2012년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푸근하다가 요 며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니 오늘은 비마저 내린다. 뉴욕의 겨울이 유난히 춥고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가 새해 첫 주 열리는 전시회를 찾아볼 심산으로 무작정 첼시로 나서기로 했다.

침묵을 들어라

박세욱_화가, MFA in SVA New York

첼시는 1990년대 비싼 임대료로 소호에서 옮겨온 작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가 생겨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2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있는 예술촌이 되었다. 감각적인 레스토랑과 바, 나이트클럽과 브탁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뉴욕은 예술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전역과 세계각지에서 몰려온 예술가들이 싸고 넓고 교통이 편한 곳을 찾아 뉴욕 한 지역에 살게 되면 이들만의 '힙한 분위기'를 상업화하는 부동산과 갤러리들이 들어와서 건물 임대료를 수배로 올려 놓고 심지어 명품 매장까지 생겨나 최고급 쇼핑가로 변해버리면 결국 예술가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스트 빌리지와 소호가 그랬고 지금 첼시도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다.

전시회 오픈 행사가 많은 목요일, 투박한 공장건물들과 주차장 사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첼시 갤러리들은 이미 올해 첫 전시의 작가와 작품을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곳 갤러리들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매우 독특한 구경거리이며 작품들 또한 다양해서 폭넓은 연령과 계층의 관람객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선보인 전통적인 회화에서 설치미술에 이르는 여러 작가들과의 대화 중 만나게 된 가장 인상적이고 주목할만한 두 아티스트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Ac_Institute gallery



● 첼시_MAGNANVIETZ GALLERY



● 스테판 에이킨_Recasting Grnapa's Mallet



새해 벽두, 닳은 듯 서로 다른 두 젊은 작가를 만나다

우리는 모두 많은 물건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사람과 물건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큼이나 유기적으로 일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물건이나 장소의 상호성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느낌마저 준다. 현대는 심지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디지털 의사소통까지 실현시키고 있다. 더 이상 절대적 권위로서의 인간은 존재하기 힘들고 초현실주의 미술에서의 오브제(objet)에 가까운 상대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어떤 소유품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경험이나 실천보다 우선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과 사물'이라는 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두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AC Institute 갤러리에서 열린 '모두 지키기 위하여(Trying to Save it All)'라는 전시회의 작가 스테판 에이킨(Stephen Eakin)의 설명이다.

"이번 작품은 제가 지난 4년 간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전 캘리포니아에서 왔으며 뉴욕 부르크클린에 있는 작업실에서 작업 하게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년전인 2009년 네바다에서 있었던 전시회를 위해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뉴욕까지 저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저에게는 작업과 저와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이 나비표본들과 낡은 망치는 저희 가족에 관한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중요한 사물입니다. 이 도구들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나비를 모으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작품에 등장합니다. 또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 'Mark Dion'의 작

품에서처럼 나비는 제가 성장하며 남겨진 기억들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변화로 다가옵니다. 저는 발달하는 기술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작업에서의 기술 도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사상과 감성보다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각 작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술적인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는 더 이상 과거가 지나버린 시간이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시간 중 일부를 현재로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사물의 또 다른 혁명입니다."

스테판 에이킨은 미네소타에서 미디어 아트 박사과정을 마치고 뉴욕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사물이 어떤 시간과 장소와 관련 있으며 개인적인 특정한 인상을 가진다고 보고 각 사물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의 과정을 흥미롭게 실험하는 한편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가 어떻게 시대와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Trying to Save it All

한편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Magnavietz Gallery에서 열린 '침묵으로의 경청(Listen To Silence)'라는 전시회에서 작가 그렌다 리옹(Glenda Leon)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물들 사이의 대화가 내재적인 소음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작품의 영감을 주는 뮤직박스는 여성적이며 미묘하고 조금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순진한 제 자신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물들로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저는 서양인이지만 분명 동양적 철학 속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동양적 사고는 무엇이든 과한 서양의 것보다 저를 매료시킵니다.”

그렌다 리옹은 독일 쾰른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고 현재 뉴욕과 마드리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이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혼돈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침묵을 통한 우리 자신과 사물과의 재 연결을 제시하고 있다. 놀라우리만큼 간결한 그녀의 작품은 동양화의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과 닮아 있었다. 이렇듯 서구식 사고 안에서 사물을 기억의 매개체인 주관적 대상으로 보는 견해와 대상과의 관계를 경험이나 연상에 의한 간접 없이 객관화된 사실로서 보는, 차이가 분명히 다른 두 전시회가 흥미로웠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적 영감으로 존재론적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와 존재론적 지성으로 인식론적 작업을 하는 닮았지만 서로 다른 두 작가를 만난 것이다.



● 그렌다 리옹



● 그렌다 리옹_Listening to the stars



● 그렌다 리옹_Music of the spheres



● 그렌다 리옹_침묵으로의 경청(Listen To Silence)

스테판 에이킨은 손때 묻은 나무 서랍장안에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는 나비 표본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전시장 한쪽 벽면으로 흑백 영사한 작품인 'For Keeping's Sake: Dad's Butterflies'에서 소유했던 사람들에 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리가 서랍을 열게 되면 실제 나비표본을 볼 수 있지만 영사되는 화면에서는 사라지고 서랍을 닫으면 실제로 나비를 볼 수는 없지만 영사화면에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원리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듯 소유품은 주인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 누군가와 다시 소통하게 되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그 소유품 자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건이 가지는 고유 가치는 우리의 집착에 비례한다는 다소 미국적인 발상이지만 장례식 이틀째에 고인의 유품을 나눠 가진다든지 하는 보편된 관습처럼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렌다 리옹은 갤러리 벽 전체를 밤하늘의 별과 아무 것도 채우지 않은 오션지,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뮤직박스 하나로 설치한 'Listening to the stars'에서 음악을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해 작은 나무 상자에 담고 왜곡하거나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침묵 속에서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 자신과 대상 사이의 간섭 없는 소통은 우리에게 대상을 인식하는 올바른 눈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렇게 두 작가는 물건을 단순히 효용과 이익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물질이상이로서의 상징화된 가치와 공유하고 소통할 때 비로서 성립되는 이질적 경험으로서의 대상을 작품으로 담아 냈다.

물건에 대한 감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물건에 대한 다양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 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의미가 새롭다.



그렌다 리옹_Magical Found Object No.5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뉴욕은 오바마를 소재로 한 팝아트로 대변되는 희망과 기대가 미술계에 남아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요사이 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위기의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 이날 첼시 갤러리들 역시 그러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발 세계 정치, 경제적 위기와 헐리우드식 2012년 위기론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마치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에 따른 미술문화의 변화가 재현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준다.

이제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미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기존 사고의 비판과 재해석이라는 문제의식을 주고 있고 그렌다 리옹의 작품처럼 동양적 사고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괴테와 리스트의 〈파우스트〉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FAUST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명작이다. 그러나 방대한 내용과 읽기 어려운 운문체로 쓰인 데다가 심오한 문학사상이나 철학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읽기 어려운 작품이다. 또 난해한 어휘나 비유적 표현, 그리고 상징이나 은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이 작품의 이해를 가로막는다.

파우스트는 1460~1539년경 독일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재주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 최고의 향락을 맛보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결국 이승에서 모든 욕망을 모두 만족시켜 준다면 24년 후 저승에서는 그의 영혼을 악마가 가져간다는 계약을 맺는다. 그는 악마를 종으로 삼고 데리고 다니며 마술의 힘을 빌려 최고의 정신적, 육체적 향락을 누린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절망한 나머지 결국 신에게 기도하려 한다. 그 때 악마는 미녀의 전형인 헬레나를 마술로 재현시키고 여인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파우스트가 그녀를 포옹하려는 순간 복수의 여신으로 변신한 헬레나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많은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예술작품 중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는 가장 유명하다.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1832년에 세상을 떠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다섯 살 때 이미 파우스트 인형극을 보았고 파우스트 전설을 읽었다. 그는 일생동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작품에 정열을 쏟았다. 작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우스트 비극은 여러 가지 문학기를 거쳐 완성되는데 괴테시대라고 하는 질풍노도시대에 시작되어 고전주의를 거쳐 낭만주의에 와서 비로소 끝을 맺는다.

시문학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괴테는 풍부한 인생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주제와 어법을 사용해 파우스트 소재를 불후의 명작으로 탄생시켰다. 젊은 시절에는 학문에 대한 절망과 사랑의 행복과 죄를 근본으로 삼고, 중년에는 헬레나의 고전적 아름다움과 일반적 인간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며, 노년에는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본질에 몰두한다.



괴테 조각상



괴테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파우스트

리슈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FAUST SYMPHONY

음악에 있어서도 <파우스트>는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많은 작품들이 <파우스트>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슈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주목할 만한 곡이다. 혁신주의자 리슈트는 교향곡이라는 관현악 장르의 전통과 결별하고 자유로운 시상을 담기 위해 교향시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지만 때로는 교향곡이라는 전통적인 장르로 되돌아갔다. 물론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향곡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의 교향곡에는 베토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용의주도한 주제발전기법이 드러난다. 특히 엄청난 스케일과 정교한 짜임새를 갖춘

<파우스트교향곡>에서 주제를 변주하는 리슈트의 능력은 탁월하다.

이 곡은 모두 3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악장은 괴테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와 그레첸,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표제를 지닌 3개의 교향시를 묶은 것처럼 보인다.

고뇌하는 파우스트를 대변하는 1악장 도입부 주제는 특이하다. 이 주제는 도-미-솔로 이루어진 장3화음에서 단지 솔을 반음 높여 만든 주제이지만 그 효과는 독특해서 반음올린 5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증3화음은 마치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처럼 난해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심오한 첫 번째 주제에 마치 한숨을 쉬듯 꺼져버리는 오보에의 모티브가 뒤를 이으며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면 갑자기 바이올린이 빠르고 열정적인 파우스트 주제를 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금관이 주도하는 1악장은 영웅적인 테마의 반복과 변주가 펼쳐지며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1악장의 파우스트의 주제와 3악장 메피스토펠레스 주제가 사실은 매우 닮았다는 점이다. 1악장에서의 파우스트의 모티브는 3악장에서 변형된 반음계와 현학적인 장식음으로 바뀌어 메피스토펠레스를 표현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주인공들이 작품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듯이 리슈트의 파우스트에서도 각 모티브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며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는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자주 보이는 주제운용방식이기도 하다. 리슈트는 자신이 베토벤의 후계자라고 칭했던 말을 이렇게 증명해보였다.

리슈트의 시도는 음악의 형식미를 무너뜨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그는 새로운 장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음악 논리를 구축했고 그의 관현악곡은 오늘날에도 오케스트라의 주요 레퍼토리로 손꼽히고 있다. 리슈트는 철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했고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는 괴테의 파우스트 중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누구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한 부포(BUFFO) 로시니

김종천 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19세기 프랑스 신문에 실린 로시니 캐리커처

영원한 부포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1792~1868)는 1792년 2월 29일 이탈리아의 페자로에서 트럼펫과 호른 주자였던 아버지와 소프라노 가수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주로 공연장에서 보낸 로시니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14세 때에는 오페라 작곡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음악 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하였고, 1809년에 첫 번째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Demetrio e Polibio)'를 작곡한 이래 37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유려하고 경쾌한 선율과 밝고 생동감 있는 인물 묘사로 뛰어난 희가극을 작곡하였다. 그의 작품은 묘한 흐름과 아름다운 가락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다. 로시니는 이전 이탈리아 작곡가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관현악법에 정통했고, 18세기의 고전음악과 19세기의 낭만음악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오페라에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신데렐라' '세미라미테' 등이 있다. 로시니의 음악은 기악곡보다는 성악곡이 알려져 있다. 성악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오페라 부파(Opera Buffa)이다. '오페라 부파'라는 장르는 로시니에 의해 확립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로시니와 오페라 부파를 떼어놓을 수 없다.

로시니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페라 부파(Opera Buffa)에 관해 서술하고 차후 로시니의 음악인생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오페라 부파

오페라 부파(Opera Buffa)란 오페라세리아(Opera Seria)와 반대되는 말로서 희가극, 경가극 등으로 번역되는데 오페레타(Operetta),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 징슈필(Singspiel)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6세기 중엽 이후 이탈리아에서 비극 또는 희극을 공연할 때 막간에 익살스러운 짧은 연극이나 노래를 삽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INTERMEZZO라 일컬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독립된 스타일의 희극으로 자리 잡았으며 18세기에 들어와서 서민생활이나 인정미담을 소재로 하여 서민적

인 일상생활의 유머를 다루고, 음악은 현악합주의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독창·중창을 중심으로 한 명량한 내용으로 되었다. 레치타티보 부분에서는 첼발로 등의 건반악기가 반주를 맡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어에 의한 작은 희가극으로 발전했다.

그 형식을 확립한 사람은 페르골레시(G. B. Pergolesi)이다. 1733년 나폴리에서 막간극으로 공연하여 호평을 받은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drona)'는 본래 그의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의 막간극으로 작곡, 상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유명해져 오페라부파(Opera Buffa)의 원형이 되었고 치마로사(Cimarosa), 피치니(Pic-



오페라 LA SERVA PADRONA의 장면들 ●

cini) 등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오페라 부파(Opera Buffa)에 이르게 된다. 후일 도니제티(Donizetti) 등에 의해 오페라 뿐만이 아닌 Concerto Aria형식의 아리아 부파(Aria Buffa), 카바티나 부파(Cavatina Buffa)도 등장하게 된다. 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drona)',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치마로사의 '비밀결혼(Il Matrimonio Segreto)' 등의 오페라가 양식상으로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이나 '돈 조반니(Don Giovanni)', '여자는 다 그래(Così fan tutte)'는 내용적으로 가벼운 것만은 아니나 양식상으로는 오페라 부파에 속한다.

오페라 부파의 배경 및 특징
OPERA BUFFA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을 이용해서 짧은 희극이 상연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페라 부파가 탄생하게 된다.

한정된 계층을 소재로 하고 무겁고 비극적인 오페라 세리아에 만족하지 못한 당시의 관객들은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여 너스레를 떨고 일상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재미있는 막간 희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막간의 여흥으로 시작된 이 짧은 희극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한 것은 절대적으로 대중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오페라 부파는 오페라 세리아보다 단순한 무대장치와 적은 등장인물로 이동성이 용이했기에 순회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여러 나라의 언어로 공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민생활의 해학과 풍자, 형식을 버린 서민들의 언어와 문화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 충실한 현실적인 오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아리아로 막의 피날레를 장식하던 그때까지의 오페라에 대신해 등장인물이 모두 참여하는 밝은 중창을 삽입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선율과 우스꽝스러운 대화, 한바탕의 소동과 익살맞은 캐릭터의등장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프랑스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던 즈음에 이 희극 오페라는 나중에는 풍자의 대상이 된 귀족들까지도 즐기는 대중적인 장르가 되었다.



● 오페라 '비밀결혼(IL MATRIMONIO SEGRETO)' 자필악보

“단원이 학인가? 학이 단원인가?”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흔히 학(鶴)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로 알려져 있으며 선학(仙鶴)·선금(仙禽) 또는 노금(露禽)이라고도 한다. 신선과 학은 친구라는 말이다. 하지만 신선이라 해서 사람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옛 선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학이 아닌가. 유학이념과 청렴고고한 자세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의 선비는 학의 이미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선비들이 입는 옷으로 학창의(鶴擎衣)라는게 있다. 학의 날개 옷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학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 닮으려 노력했다.

또 학은 장수(長壽)를 상징한다. 천세(千歲)를 누리라는 의미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 백수를 누리기도 쉽지 않지만 그토록 오래 살기를 바라는 기원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 거북이도 가장 대표적인 장수의 동물이다. 동양의 속담에 ‘학은 천년, 거북은 만년’이라는 말이 있다. 즉 거북과 학처럼 장수하라는 뜻에서 귀령학수(龜齡鶴壽)라 한다. 이런 글귀와 그림은 왕실이나 반가에서 양로연(養老宴) 베푸는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럴 때엔 한 마리를 그리되 주로 소나무에 앉아있는 학을 소재로 삼는다. 소나무는 독야청청(獨也青青)의 고고함은 물론이지만, 송(松)의 글자 뜻이 모든 수목(木)의 어른(公)이라는 의미이므로 곧 장수와도 직결된다.

夕陽歸巢

오늘은 김홍도의 학에 대한 그림과 글을 읽어 보기로 한다. 그의 꽃과 새 그림 중에서 매화나 대나무와 학은 노년에 많이 그렸다. 첫 번째는 <석양귀소(夕陽歸巢: 종이담채, 29.3×34.5cm, 간송미술관)> 작품이다.

당대 주위의 문사들이 그를 두고 학처럼 고고한 사람이라고 평한 글이 많아서 그런지 그림 속의 학은 아마 그가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그의 키도 학처럼 흰칠하게 컸다고 한다. 이 작품은 학이 풀밭에 앉았다가 방금 계곡위로 향해 날개짓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화면 왼쪽 위의 제화시를 먼저 보자.

석양 무렵에 우뚝 홀로 서서 (軒軒獨立夕陽時)
향기로운 풀과 깨끗한 모래에서 쉬고 있네 (芳草明沙倦垂宜)
뜻이 이르자 홀연히 날아 눈처럼 가니 (意到忽然飄雪去)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누구와 함께 가려는가 (靑山影裏赴誰期)
단구 (丹邱)

시의 첫구 머리엔 평권석산방(平卷石山房)이라는 두인(頭印)이 둥근 도장의 흰 글구로 찍혀 있고, 끝에는 단구의 관서 밑에 그의 자인 사능(士能)이 사각 도장의 붉은 글구로 찍혀 있다. 해질 무렵 석양을 등지고 하루를 마감하며 등지로 돌아가고 있다.

바위옆 풀섬은 조금 짙게 먹을 눌렀고 산언덕과 허공은 연한 담채로 처리한 게 농담(濃淡)이 잘 조화된 그림이다. 약간 수척해 보이는 학이 화면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구도이다. 관서로 보아 김홍도의 노년 작품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인지 학을 통해 속세를, 초탈한 고고함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마치 자연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픈 심경을 표현한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를 연상케 한다. 학의 고고함은 곧 선비의 기상이 아니었던가.

飛鶴圖

두 번째는 <비학도(飛鶴圖 : 종이담채, 27.5×33cm, 개인 소장)> 작품이다. 노송의 가지에서 앉아있다가 방금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가운데 언덕위에 우거진 소나무가 세갈래로 뻗어 있다. 매우 짙게 필묵으로 누른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 무거운 느낌을 던져준다. 학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아득한 공간감이 부여되어 있다. 학과 대칭되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제화시가 있다.

화표주 위에 말 남겨놓은 후 (華表柱頭留語後)

오늘 아침까지 도무지 소식이 없네 (更無消息到今朝)

단구(丹邱)

역시 첫째 작품과 마찬가지로 두인과 관서 등은 똑같다. 노년 무렵 같은 시기에 모두 그랬던 것 같다. 화표주란 임금이 행차하는 길을 표시하는 표지석(숫대)을 말하며, 때로는 다리나 무덤 앞의 망주석을 일컫기도 한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중국 한나라 때 요동에 정령위(丁令威)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영허산(靈虛山)에 가서 신선도를 배운 뒤에 학으로 변신하여 요동에 돌아와 성문(城門)의 화표주(華表柱)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어떤 소년이 활로 자기를 쏘려고 하자, 학이 높이 날아올라 말하기를 “두루미로 변한 정령위가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돌아왔네. 성곽은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어이하여 신선이 되는 법 배우지 않아서 죽어 묻힌 무덤이 여기저기 쌓였는고.” 라고 한탄하면서 하늘높이 사라졌다고 한다. (<수신후기(搜神後記)> 권1).

1720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 (상)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그가 연경(지금의 북경)에 가는 길에 요동 땅에 있

는 정령위의 화표주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백탑(白塔)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았으나, 막상 아는 사람이 없어서 끝내 찾지 못해 매우 한스러웠다고 써놓았다. 그런가 하면 툭툭 튀는 글쓰기로 유명했던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보았다고 했다. 그의 중국방문기인 <열하일기(熱河日記)>(요동백탑기)를 보면 이렇게 써놓았다. 정령위가 머물렀던 곳에 세운 비석을 화표주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화표주는 요양성 밖 십리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있고, 높지도 크지도 않다. 이 화표주를 백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노복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문인관료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올 양이면 요동을 꼭 지나기 때문에 드높은 백탑을 으레 보았고, 더불어 화표주를 찾아가 보곤 했다. 하지만 화표주 머리에 앉은 학을 본 사람은 아직 없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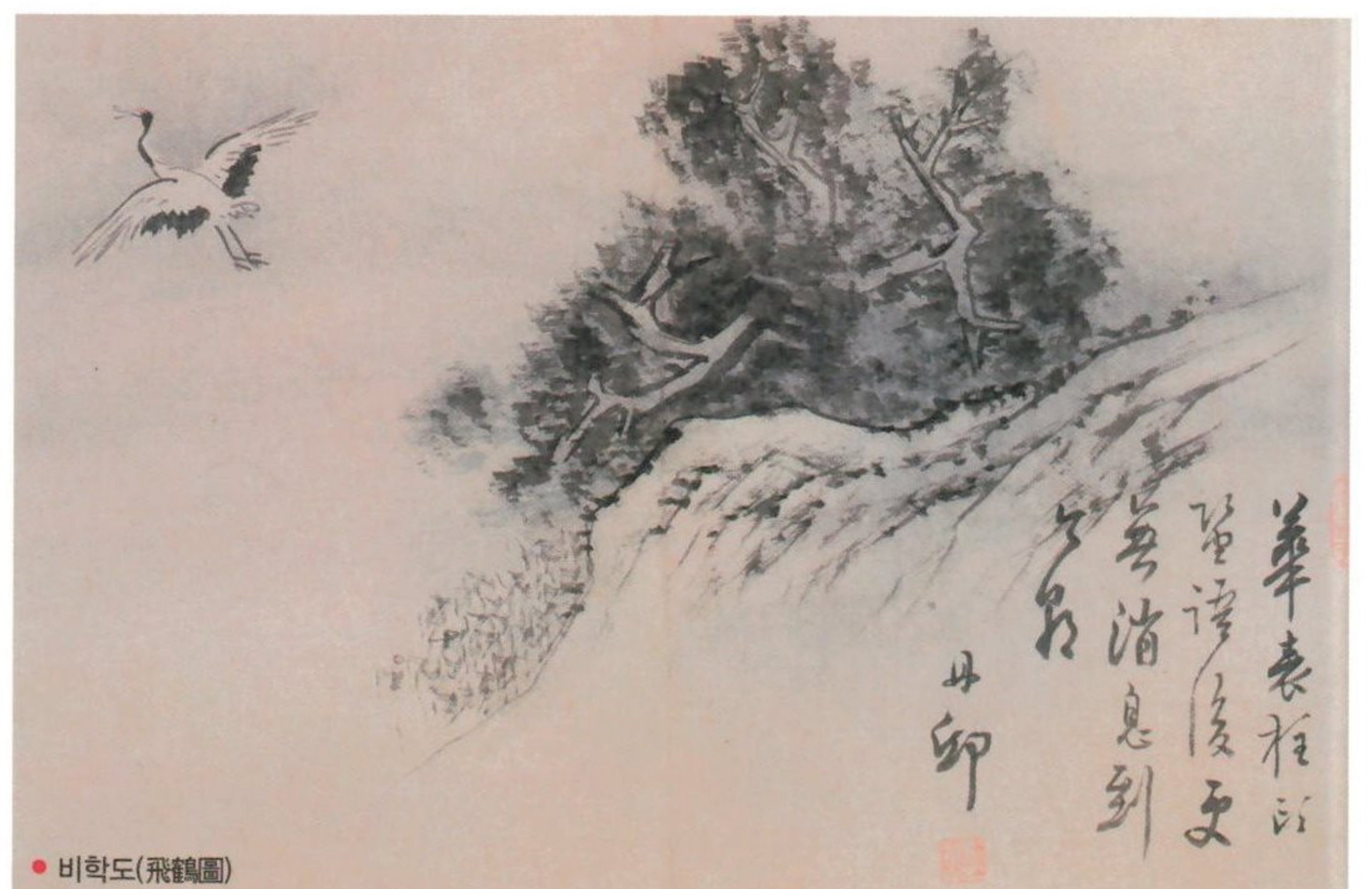
한편 조선의 천재시인이자 문신이었던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1601년 진하사(進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는 길에 요동에서 화표주를 보고 7언율시를 남겼다. 시구 일부에 “신선술 배워 터득하여도 무슨 즐거움이 있었으랴(學得神仙有何樂) / 옛 친지와 벗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터에(向來親故已全稀) / 뜬구름 인생 겹쳐쌓이는 무덤이 될지라도(浮生任作纍纍塚) / 학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갈 필요는 없으리(不用冲天化鶴飛)” 라고 읊었다. 마음 속의 화표주가 실제 중요하지 꼭 신비화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 것 같아서 문사들과 다른 그의 지조가 새롭다.

이처럼 선조들은 학을 고고하게 여기며 자연을 경외해왔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본의 물욕에 빠져 자연생태를 학살하고 있다.

며칠 전 밀렵꾼이 농약이 든 범씨를 뿌려 날짐승을 수백 마리 떼로 포획한 뉴스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 석양귀소(夕陽歸巢)



• 비학도(飛鶴圖)



소박하지만 거침없는 표현으로 서민적인 향기를 발산하는 분청도자기.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위에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덮은 회청색 사기로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불린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도자양식으로,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인 15~16세기에 번성했으나 당시 조선의 백자 선호정책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실용적인 형태와 문양, 다양한 분장기법으로 서민적이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난 도자기로 인정받고 있다.

흙과 불과 사람의 만남

국내 최초 분청도자관 김해분청도자관

'청자' 하면 전라도 강진, '백자' 하면 경기도 이천이듯 '분청' 하면 바로 김해이다. 그중에서도 김해 송정리는 40여년 전부터 도예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80여가구가 가마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예촌이다. 특히 잊혀졌던 분청도자기의 형태와 색을 다시 살려내면서 분청도자기의 고장으로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9년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분청도자관인 김해 분청도자관이 문을 열었다. 건축 도자예술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바로 옆에 자리한 김해분청도자관은 우리나라 전통 차사발을 모티브로 한 2층 건물에 분청도자 역사관과 분청도자 작품관, 기획전시실, 판매관 등이 들어서 있다. 1층 분청도자 역사관에서는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찬란했던 김해 도자기와 분청도자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현대분청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분청도자 작품관

을 둘러본 후에 2층 판매관에서는 김해 도예인들의 맘과 정성이 깃든 도자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분청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현재 분청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이 만난 '현대 속의 분청' 전시가 열리고 있다. 특히 도자관 앞 마당에 설치된 우리나라 전통가마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 분청도자의 제작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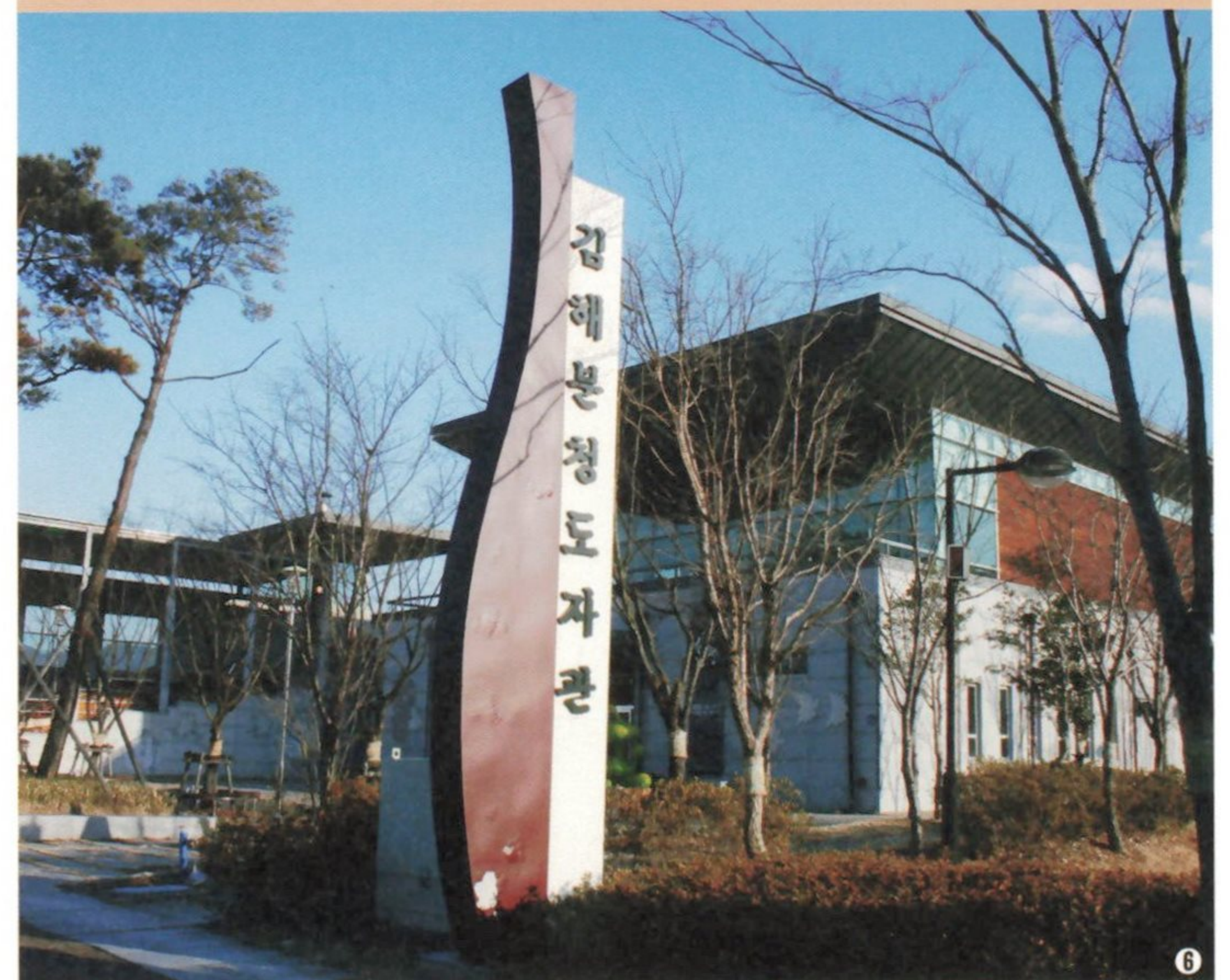
김해분청도자관에서는 3월부터 다양한 도자체험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물레체험에서부터 다양한 색과 재료를 이용해 자신만의 표현방식으로 꾸며보는 '초벌기에 그림그리기', 분청도자기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도판에 문양을 디자인해보는 '포인트 타일만들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세사리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치원,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 사전 단체신청을



- ① ② 김해분청도자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
- ③ 김해분청도자관 1층 역사관
- ④ 김해분청도자관 야외에 위치한 전통가마
- ⑤ 김해분청도자관 2층 판매관
- ⑥ 김해분청도자관 전경

받아 도자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자체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다. 또, 지난 1996년부터 분청사기의 고장 '김해'의 명성을 알려온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올해 10월에도 이곳 김해 분청도자관을 중심으로 열린다. 축제에 앞서 9월에는 분청도자의 우수성과 미적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수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국 분청도자 공모전도 펼쳐진다.

관람시간 : 오전 10:00 ~ 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 김해분청도자관(055-345-6035~7, doja.gimhae.go.kr)





오케스트라로 행복을 꿈 꾸다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강의를 끝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환경연구동. 어둠이 내리는 시각, 캠퍼스에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다. 음악대학이 없는 부경대학교에서 듣는 클래식 음악에 놀라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호기심에 음악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이른 곳은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연습실.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2010년 5월, 음악이 있는 대학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헌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중학교 때 비올라를 배운 것을 인연으로 대학 시절 아마추어 실내악단 활동을 했던 것이 성년이 된 지금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캠퍼스에 음악의 향기를 더하고 그 시절 내게 꿈을 안겨준 음악을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오케스트라 창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창단을 고민하던 이병헌 교수는 부산뮤직아카데미 최명혜 원장과 음악가 이주는 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케스트라 창단을 결심하게 되었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 30명 규모의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창단 이후 최명혜 원장과 음악가 이주는 씨가 1년간 오케스트라를 위해 무보수로 지도했고 최명혜 원장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산클라리넷 소사이어티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 씨가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있다.

창단과 함께 부경대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대학생활의 낭만을 찾고 싶은 열정 넘치는 부경인들이 매주 음악으로 행복을 빚어내고 있다. 창단 후 7개월 동안 맹훈련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아온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그해 11월 창단연주회를 열어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계속되는 경제불황 탓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신조어)’을 면하기 위해 대학 1학년 때부터 취업의 틈바구니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느 대학생들에게는 ‘용기있는 도전’으로 부러움을 한껏 받았다.

단원들중에는 중·고등학생 시절 악기를 배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악기를 한 번도 배운 적 없지만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오케스트라에 도전한 학생도 있다. 전공은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등 다양하지만 음악을 배우고 싶은 열정은 여느 음악 전공자 못지않다. 지금은 악기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



●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외에 점심시간 교내에서 작은음악회를 가지기도 했다.

으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단원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창단 당시 경영대학 행정실 직원 김혜전 씨와 김수용 교수 부인 최홍남 씨가 함께 참가했지만 지금은 잠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지난 2년간 강의를 마치고 두 시간 쉼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온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서관 음악회를 가지면서 학우들의 박수를 받았다. 요즘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새내기들에게 음악이 흐르는 캠퍼스의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연습이 한창이다.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남기현 학생은 ‘화합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주위에 적극 권한다.

“연주를 준비하면서 단원들의 끈기와 열정에 매번 놀란다”는 이병헌 교수는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연륜을 쌓아가면서 부경대학교 대학 동문오케스트라로 전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부경대학교를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 남다른 추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사진제공_ 부경대학교



Review

부산국제음악제 협주곡의 밤

신설령_음악평론가

● ● ●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실내악의 향연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뒤로한 채 실내악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부산문화회관으로 향하게 한다. 매서운 추위 속에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두 번째 날은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으로 열렸다. 첫 번째 협주는 모차르트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다. 고이치로 하라다와 김남윤은 윤기 있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제 1악장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곡이 너무 짧다. 그 다음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다. 피아노는 신수정과 이경숙이 맡아 역시 한 악장을 연주하였다. 피아노 음색도 예쁘고 호흡도 잘 맞는다. 그런데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관록 있는 연주자인 이들에게 모차르트 작품 한 악장 연주가 조금은 허전하다. 연주는 빈틈없었지만 그들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을 선곡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를 자기만의 색깔로 충분히 표출할 수 있을 그들이다. 짧은 시간 안에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모차르트의 두 곡은 흡인력이 약하다. 신수정 씨의 경우 작년에 박흥우 씨와 함께 했던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가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날 빛나는 연주는 신연황이 연주한 바르톡의 비올라 협주곡이었다. 그는 비올라라는 악기로 때로는 바이올린처럼 섬세하고 명료한 음색으로 고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때로는 마치 첼로처럼 저음의 중후한 소리로 노래하며, 거기다 비올라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을 섞어가며 다양한 음색으로 연주하였다. 신연황의 연주는 현란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바르톡의 독특한 음향과 만나 청중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빠져들게 하였다.

부산국제음악제에서 보고 싶은 무대 중 하나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연주자 뿐만 아니라 작품이기도 하다. 물론 같은 곡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지만 특별한 실내악 축제이니 만큼 새로운 음악청취 경험을 기대하는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 더 많이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마지막 연주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이었다. 이 곡은 피아노 연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피아니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아노를 맡은 김정권은 피아노를 확실하게 장악하였다. 그는 때로는 오케스트라와 대결하며 당당하게 연주하고, 때로는 맑고 투명한 음색으로 아름답게 노래하며,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악기를 반주하듯 다양한 표현으로 음악을 이끌었다. 베토벤의 환상곡을 함께 연주한 부산 성악인들의 좋은 연주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기억될 것으로 믿는다. 협주곡의 무대를 펼칠 수 있게 한 오충근 지휘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바르톡 작품보다는 베토벤 작품에서 안정된 연주를 보여주었다.

클래식 음악회가 뜸한 겨울 이러한 음악의 축제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나간 연주자들의 면면과 그들이 연주한 작품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다가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기대한다.



우리 미디어가 나아갈 길

남인용_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 교수로 일한지 13년 만에 연구년을 맞아 작년 12월 말부터 미국 뉴욕주 알바니에 있는 뉴욕주립대학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 외국 생활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는 방송일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는 미디어 콘텐츠는 외국의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3개월 동안 언제나 방송을 틀어두면 어느 순간에 영어가 들린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배경음악처럼 방송을 깔아두고 산다.

케이블을 가입하고 보니 우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채널의 수가 많고 채널의 유형이 다양하다. 무엇보다 스포츠 채널의 수가 많다. 얼마 전에 뉴욕 자이언츠의 우승으로 끝난 슈퍼볼을 포함하는 NFL을 비롯해 NBA, NHL, MLB 등 4대 프로 스포츠 이외에 대학 스포츠인 NCAA를 언제나 볼 수 있으며 테니스 채널도 따로 있어서 1년 내내 테니스 대회만을 중계방송하고 있다.

왜 이렇게 스포츠 채널이 많을까? 인근의 YMCA에 가보니 온갖 운동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다.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사치품이라면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필품이 되어 있다는 점이 무척 부러웠다. 이렇게 운동을 즐기는 기반이 든든하다 보니 스포츠를 다루는 방송채널도 많아지고 기업들이 다투어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서 예전에 들어보던 음악이 매우 많다는 점도 놀라운 일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흔히 듣는 음악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온 바로 그 음악이라는 점은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얼마 전에 소녀시대가 '데이비드 레터만 쇼'를 비롯한 미국 방송에 출연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의 풍부한 감성을 담은 음악을 이곳 사람들이 두루 함께 즐기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케이블에서 HBO와 같은 유료 방송을 가입하면 같은 콘텐츠를 아이



우승 후 환호하는 매닝

패드나 아이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케이블 회사의 앱을 통해 각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미디어의 경우 케이블 가입과 콘텐츠의 개별 이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특히 유료 채널 가입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콘텐츠의 경우도 스포츠 채널과 마찬가지로 기반이 든든했다. 우리 극장의 경우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이곳의 극장에는 오히려 나이 많은 중년 또는 노년의 관람객이 다수였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고령 인구가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향유할 사회, 문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18개관으로 구성된 인근의 쇼핑몰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의 경우 18개관 모두 미국 영화로 채워진 때도 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국영화의 제작 편수가 모자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채널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 방송하는 현재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용자들의 취향의 다양화를 가져올 다양한 교육경험과 인생체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또한 미디어의 몫이 될 만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은 막중하다.

제 6회 작은 거위들의 합창

3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정미(010-8544-2580)

아름다운 오카리나를 지도, 보급해온 한국오카리나 지도자교육협회가 주최하는 작은 거위들의 합창 여섯 번째 무대.

한국오카리나 지도자교육협회 소속 13개 오카리나 앙상블들이 청아하고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다가 보이는 마을, 꿈을 먹는 젊은이, 아빠의 청춘, 백만송이 장미, 아름다운 나라, 거위의 꿈 등

· 연주/리틀향기, 아라움, 가야, 소리향, 알토란, 모아, Gem Junior, 토우, 가은, 바람소리, 하늬바람, 은가비, 프렌즈

· 특별출연/송용창(아코디언 연주가)

· 솔로/김청수, 함민수, 이탁교, 권혁

독일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3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 코리아뮤지카(02-2277-6516)



독일과 유럽의 유명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젊은 음악가들로 창단된 독일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오케스트라(이하 NPH) 내한연주회.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몇 안 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NPH는 1999년 창단 이래 독자적인 연주기법과 음악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연구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왔다.

Wendland Symphony Orchestra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Felix Bender가 지휘한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합창단 창단연주회

3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동호(888-3771)



2011년 합창에 관심있는 부산광역시 공무원들로 결성, 음악과 함께 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온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B·STA) 창단연주회.

B·STA는 부산의 문화를 빛내는 Star를 뜻하는 공무원 합창단의 애칭이다.

프로그램

오픈스테이지/조국찬가

아름다운 한국가곡/남춘, 님이 오시는지

재미난 노래/경매꾼, 카츄사 등 수곡

· 지휘/오동주 · 피아노/이승윤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안녕, 엄마’

3월 8일-10일 목-금요일 오전 11:30,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7천원(두 작품 관람 1만원)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시립극단 2012년 첫 무대로 선보이는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부산에서는 다소 생소한 낭독공연은 완전한 무대장치나 의상, 조명 등을 다 갖추지 않은 채 배역을 나누어 맡은 배우들이 대본을 들고 한 편의 연극을 들려주는



공연형식으로 주로 극작가의 신작 희곡을 발표하거나 외국의 새로운 희곡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무대는 ‘조선형사 홍윤식’으로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성기웅의 연출로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경제번영 끝에 불경기를 겪게 된 일본인들이 되돌아보는 노년과 중년의 아프고도 유머러스한 자화상을 그린 나가이 아이 작 ‘안녕, 엄마’ 두 작품으로 단편소설과 희곡을 음미해본다.

소설 낭독공연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3월 8일(목)-9일(금) 오전 11:30

· 작/박완서 · 연출/성기웅 · 낭독/강애심

희곡 낭독 공연 <안녕, 엄마>

3월 8일(목)-9일(금) 오후 7:30

10일(토) 오후 3:00

· 작/나가이 아이 · 번역/박혜성

· 연출/성기웅 · 출연/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I) 2012 신춘음악회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2년 신춘음악회.

세계적인 지휘자인 세이지 오자와의 부지휘자로 발탁되어 상하이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중국오페라단과 무용극장의 교향악단 및 중국청소년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며 중국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후양 이가 지휘하고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따뜻한 감성과 화려하고도 열정적인 음색의 소유자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 테크닉과 음악성을 두



루 갖춘 피아니스트 송유진, 독일 국가공인 에이전시 (ZAV) 소속가수 소프라노 강민성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박쥐 서곡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리스트/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슈트라우스/천둥과 번개 폴카 등 수곡
 · 지휘/후양 이
 · 협연/오지은(바이올린), 송유진(피아노),
 강민성(소프라노)

YMD Wind Orchestra 제 2회 정기연주회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기률(010-3496-4445)



김기률 최무진 김동현

지난해 상임지휘자 김기률과 음악과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열정과 패기있는 관악전공 학생, 졸업생으로 창단된 YMD Wind Orchestra 제 2회 정기연주회. 지난해 9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YMD Wind Orchestra는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 연주단을 설립하며 새로운 연주 기회제공과 전문연주인력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파이크/Hanover Festival, Invictus
 문지은/반짝임
 쇼스타코비치/왈츠 제 2번 등 수곡
 · 지휘/김기률(YMD Wind Orchestra 상임지휘자)
 · 협연/최무진(바순, 경성대학교 4학년),
 김동현(트럼펫, 경남관악단 트럼펫 수석, 진주시
 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 작곡/문지은 · 해설, 진행/김윤선(음악평론가)

화이트데이 아르츠 콘서트

‘송영훈 & 김정원’

쇼팽과 사랑에 빠지다- FALL IN CHOPIN

3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R석 4만 2천원 · S석 2만 8천원)

문 의 | 더 스톱프뮤직(02-2658-3546)



송영훈 김정원

한국 클래식계에 현존하는 최고 스타 플레이어 송영훈과 김정원이 들려주는 화이트데이 아르츠 콘서트. 음악을 공유하는 친구로 오랜 우정을 쌓아온 송영훈, 김정원이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으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에 우뚝 섰던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 외에도 들라크루아의 미술작품을 콘서트마스터 윤운중의 해설과 함께 더욱 진하게 느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쇼팽/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작품 65
 쇼팽/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다장조 작품 3번
 · 해설/윤운중

**부산시립합창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나영수>와의 만남
 ‘우리의 노래’**

3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한국 합창음악의 거장, 선구자 ‘마에스트로 나영수’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2012년 첫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 선

율이 전국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무대로, 한국합창명곡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우리말로 연주하는 순수합창공연이다.

객원지휘를 맡은 나영수 지휘자는 대한민국 국보급 지휘자로 한국적 창법 개발과 보급을 위해 한국합창곡만을 연주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주로 한국창작음악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헌신해왔다.

프로그램

민요합창/당달구(김동진 곡), 몽금포타령(김성태 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채동선 곡)
 여성합창/귀뚜라미(김규환 곡), 진달래꽃(박재열 곡), 소요유(이영조 곡)
 남성합창/희망은 아름답다(이선택 곡), 산 낙지를 위하여(김준범 곡), 된창(정덕기 곡)
 성가합창/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성모송(최병철 곡) 등 수곡

1993-2012 재창단 기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 13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음악의 재발견**

3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학생은 예매에 한해 50% 할인)

문 의 | 임병원(663-4900, 010-8533-4917)



임병원 윤태준 유주영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제자들로 창단된 이래 2000년까지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다. 잠시 공백을 가졌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가 10년의 공백을 깨고 들려주는 재창단연주회 '바로크 음악의 재발견'.

프로그램

비발디/바이올린협주곡 작품 8 제 1번 봄, 바순협주곡 제 7번 가단조, 두 대의 첼로협주곡 사단조
 바흐/관현악 조곡 제 2번 BWV1067
 마우/비올라 오브리가토가 있는 신포니아 제 6번 등
 · 음악감독/임병원(경성대학교 예술대학장)
 · 협연/윤태준(바순), 유주영(플루트)
 · 연주/이리나, 김은정, 김희진, 김연정, 서영희, 김은근 (이상 바이올린), 최영식, 정지윤(이상 비올라), 양육진, 김판수, 이에성(이상 첼로), 박희철(베이스), 이은정(첼발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이치현과 벗님들

3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하드록에서 소프트록까지 소화하며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록 그룹 '이치현과 벗님들'이 들려주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1977년 리드보컬 이치현, 기타 오세홍, 퍼커션 김준기로 결성된 '이치현과 벗님들'은 결성과 함께 '당신만이' '다가기전에' '사랑의 슬픔'을 연속 히트시키며 국내가요 시장에 밴드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최정상 인기의 인기를 누렸다. 88올림픽 때 발표한 '집시여인' 또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6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3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011-589-3111)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가 들려주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부산을 비롯해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명의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UKO는 2006년 창단 이후 약 8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약 3억 3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했다.

프로그램
 베버/오베론 서곡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 20번 라단조 작품 466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 '왈츠' '정경2' 스텐타나/ '팔려간 신부' 중 '3개의 춤곡'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피아노/오현정
 · 발레/김희선(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김경원(한국예술종합학교 3년)

서은아 바이올린 독주회

3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의 독주회.
 서은아는 독일과 러시아에서 활발한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라장조 작품 12
 라벨/치간느 작품 74
 비니아프스키/전설 작품 17
 프로코피예프/소나타 라장조 작품 94b

<바다사랑> 부산음악사랑회 제 7회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3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사랑회(011-885-6600)

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음악사랑회는 2005년 7월 창립이래 그동안 35회의 크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행복한 음악을 전해왔다.

프로그램

김동진/가고파
 쿠르티스/날 잊지 말아라(Non ti Scordar di me)
 레하르/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을 지키지만(Lippen Schweigen)' 등 수곡
 · 출연
 장은영, 배화자, 오옥화, 정복귀(이상 소프라노), 김지호, 오거돈, 김동현, 김정민(이상 테너), 한성권, 김성홍(이상 바리톤), 정광덕(베이스)
 · 연주/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4만원 ·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심오함과 섬세한 서정을 두루 표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1994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메릴랜드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 1위, 영국의 리즈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 입상한 백혜선은 보리스 베레초프스키, 랑랑 등과 함께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되었다.

베토벤 소나타 중 가장 까다로운 난곡 31번, 쇼팽 전주곡 24개 전곡으로 감동을 전한다.

프로그램

메시앙/전주곡 중에서 '비둘기', 새의 카탈로그 중에서 '꼬꼬리'

베토벤/소나타 31번 작품 110

쇼팽/전주곡 24개 전곡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1회 정기연주회 '2012. 신춘음악회 - 국악, 봄을 품다'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우리 음악으로 만나는 싱그러운 봄의 향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1회 정기연주회 '2012. 신춘음악



신명숙

하연화

박세준

회 - 국악, 봄을 품다'.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봄의 역동성과 경쾌한 리듬을 표현한 춘광여정, 동, 서양의 조화를 표현한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푸른 자연을 노래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청청(淸靑)' 등 우리음악의 흥과 멋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준호/춘광여정

강상구/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조원행/국악관현악을 위한 '청청(淸靑)' (부산초연)

황의중/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위한 협주곡

임준희/관현악 '섬' (부산초연)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신명숙(가야금), 하연화(춤), 박세준(춤)

· 사회/김지현(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제 34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 연주회 '애창곡의 밤'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승엽(010-7767-4390)

창단 24년의 전통을 가진 이태리 음악연주단체인 이태리음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애창곡의 밤.

이태리에서 음악수업을 한 성악가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매년 1~2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벨칸또음악을 선물해왔다.

프로그램

비시오/사랑한다 말해주오(Parlami d'amore Mariu)

토스티/최후의 노래(L'Ultima Canzone), 4월(Aprile)

비발디/나는 저 자스민이에요(Io Son quel gel-

somino) 등 수곡



김길수

이은미

정거화

· 출연

소프라노 이은미, 이윤정, 권경미, 윤지영, 정미순, 테너 정거화, 양승엽, 바리톤 김길수, 윤희원, 베이스 권영준, 최성근(피아노), 안선애(피아노)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제 477회 정기연주회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II)

프로코피예프 Symphony V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리 신차오

최지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최지은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7회 정기연주회. '부산연주인시리즈' 2012년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최지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피바디 음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섬세한 감정표현과 열정으로 청중을 집중시키는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

프로코피예프/교향곡 제 5번

· 지휘/리 신차오(수석지휘자)

· 피아노/최지은

Amorose 창단연주회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현정(010-3868-2808)



소프라노 정태미 교수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제자들로 결성된 성악연구회 Amorose 창단연주회.

Amorose는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이직/인생의 참 의미

드볼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부치는 노래'

오벤바흐/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 등 수곡

· 출연

정태미, 조신미, 이현정, 박지영, 김혜원, 김수현, 박소연, 구민영, 권미현, 이영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John Rutter의 'Gloria'

3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국내외 초청연주회로 음악활동의 폭을 넓혀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2012년 첫 정기연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립한국예술영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조 원장(작곡가 이흥렬의 다섯째 자녀)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위해 편곡한 봄노



전상철



마원휘

래 모음곡, 바리톤 최상재의 특별공연,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연합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이영조/봄노래 모음-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비단 안개, 사계의 노래

변훈/명태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잘 생긴 파리스가 했던 방법과 같이'

이호준(편곡)/Tantum ergo, Gloria, 들장미 소녀 루터/글로리아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마원휘),

바리톤 최상재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3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승아(010-6432-0821)



2002년 창단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 금정수요음악회, 찾아가는 연주회, 울산과학관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사랑을 실천해온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의 제 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전주곡

슈베르트/미완성 교향곡

비제/모음곡 아를르의 여인 등 수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테너 김상곤 교수 독창회

3월 25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모티브플래닝(02-543-7352)



타고난 미성과 정통 벨칸토 발성으로 수많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공연을 통해 감동을 선사해온 이화여자대학교 김상곤 교수의 부산무대. 오랜만에 부산 무대에서는 테너 김상곤 교수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유학 시절부터 벨기에 베르비에 국제 성악 콩쿠르, 이태리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성악 콩쿠르, 프랑스 툴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 등 유럽의 주요 콩쿠르를 석권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홍난파/봄처녀, 그리움

김동진/봄이 오면, 가고파

현제명/나물캐는 처녀

홍난파/사공의 노래

프랭크/생명의 양식 등 수곡

· 피아노/정소영

제 16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3월 25일 **일요일** 오후 2: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명숙(011-9324-8149)

부산시장기 어머니합창대회 연말결선 1등을 비롯해 제 3회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II부문 본선 은메달, 중국 샤먼합창올림픽 동메달 등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원음합창단은 1973년 창단 이후 '창극 소태산', 부산예총 정기발표회, 전국성가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성가 영광의 백년성업, 둥그신 그 체성이여

가곡 남춘, 청산은 나를 보고, 희망의 나라로 등 수곡

· 지휘/김도형 · 반주/이신정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 33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티켓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의 | BSO(621-4577, www.bso21.com)



이종진 이진성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3회 정기연주회로 일본 도쿄국립예술학교 지휘과 연구원,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거쳐 충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진의 지휘, 피아니스트 이진성의 협연으로 새봄, 싱그러운 교향악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리스트/피아노협주곡 제 1번 내림마장조 작품 124
- 베를리오즈/환상교향곡 다장조 작품 14
- 지휘/이종진(충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피아노 이진성(경성대, 인제대 외래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악장 임병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40회 정기연주회 '조르주 비제'**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월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베트남 순회연주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안정된 기량으로 찬사를 받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2년 첫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세련된 작곡기법과 새로



이동신 정주연 한현미

운 시도 등으로 무대 위의 극적 효과를 살리며 극과 음악의 융합에 성공한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최대 걸작 '카르멘', 아름다움과 진실로 가득 찬 걸작 '아를의 여인' 관현악 모음곡으로 37세에 요절한 천재 작곡가 비제를 만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뉴욕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듀케인대학교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등을 역임한 플루티스트 정주연, 국제성악콩쿠르 UFAM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Ravel 특별상 등을 수상한 메조소프라노 한현미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 비제/카르멘 모음곡 중
- 비제/카르멘 환상곡(보네 편곡)
- 생상스/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
- 비제/'카르멘' 중 '하바네라', 아를의 여인 모음곡 등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정주연(플루트), 한현미(메조소프라노)

**한국리스트협회 부산 경남지부
제 3회 정기연주회**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010-7323-7645)

2011년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리스트협회가 '리스트와 동시대 음악가'라는 주제로 2012년 첫 무대를 연다.
 리스트와 동시대 음악적 교감을 나누었던 쇼팽, 슈만의 곡들을 들려준다.
 · 연주/김현주, 길금혜, 강경원, 김정미, 이숙애, 김혜경, 서윤진, 박주영, 이재성, 이명숙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
2012 제 30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4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개막식 | 3월 30일(금) 오후 7:00 **중극장**
 시상 및 폐막식 | 4월 16일(월)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입장료 | 개막축하공연 R석 3만원 · S석 1만 5천원
 경연작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부산연극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산연극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최고의 연극 축제 제30회 부산연극제.
 인천시립극단의 개막축하공연 '햄릿', 10개 극단의 경연무대와 자유 참가팀들의 축하공연, 부산시민연극제 등 더욱 풍성한 연극축제가 펼쳐진다.

개막축하공연 인천시립극단 '햄릿'

3월 30일-31일 금요일 오후 평일 7:00,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사랑과 광증〉, 〈두귀족의 친척〉, 〈맥베스〉 등을 통해 셰익스피어 작품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온 인천시립극단의 개막축하공연 '햄릿'.
 인천시립극단의 햄릿은 지성, 이성, 감성 3박자를

아우르는 '햄릿'으로 재탄생, 햄릿의 꼬리표였던 우유부단을 떼어내고, 섬세하고 치밀한 행동력 있는 인물로 그려져 큰 호평을 받았다.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3월 29일-4월 3일 일 평일 오후 평일 7:30,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여행을 떠나요'는 자폐증으로 세상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32살 재호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 작, 연출/김동민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3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 재직중인 김남순 교수를 단장으로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야금 전공자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은 찬란한 가야, 신라음악문화의 꽃인 가야금이 주축이 되는 가야금오케스트라이다.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특별연주회, 상설공연을 비롯해 연간 2~30회의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프로그램

김계옥/궁타령의 멋 3중주, Victory, Libert Tango, 가야금 4중주를 위한 <春>
정대석/가야의 혼불(2011년 부산가야금연주단 위촉곡)
김영재/춘접무곡, 엘리제를 위하여 등 수곡
· 예술감독/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3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프로그램

춘앵무(춤/이화성), 장고춤(춤/박창희, 이현정, 김주연)
진주교방굿거리춤(춤/김주령 수석), 소고놀이(춤/김진영)
진주검무(춤/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살풀이춤(춤/장래훈), 꼭두상모(춤/윤은하, 이현주(A) 이현주(B))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3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프로그램

한국가곡/남춘(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이수인 곡)
이태리 가곡/La Serenata, L'ultima Canzone
여성합창/The Sound of Music, My favorite Things, Do-Re-Mi
Song of S.Foster/Nelly Bly, My old Kenterky home, Beautiful Dream
가요-김광석 노래모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일어나' 등 수곡

출연

Sop. 김나영 전귀만 이정희 최선희 유수정 권순유
Alto. 정은영 김성미 박성혜 안소영 장은경 김윤희
Ten. 강종철 박성환 조성기 김웅태
Bass. 김태우 최기호 오승중 김창돈
Piano 이승윤

· 지휘/박광해(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Music

곽은아의 가야금 '법고창신'

3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곽은아(010-6249-4926)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곽은아 가야금 독주회.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곽은아는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가들의 지역적 소통을 위한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

황병기/새봄, 숲, 남도환상곡
 백대웅/신관동별곡 등

금정수요일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 7일 | 김병기 피아노 독주회

일본 동경음악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학생음악콩쿠르에서 3등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김병기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32 변주곡 WoO 80
 브람스/4개의 소곡 작품 119 등

| 14일 | 김문주 & 김진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문주, 김진희가 마련하는 듀오 무대. 김문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김진희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문주



김진희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생상/죽음의 무도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 2번

| 21일 |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국 이스트만음대,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토스카니 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창회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프로그램

홍난파/봄치녀, 사랑, 옛동산에 올라
 김동진/봄이 오면, 가고파, 목련화
 이흥렬/꽃구름속에, 새타령 등 수곡
 · 피아노/박미은
 · 특별출연/이상석(마림바, 부산예고 2년)

| 28일 | 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부

산신포니에타 수석, 비르투오조 Quartett 멤버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김은진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환상소곡집
 Y. Bowen/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환타지 작품 54
 브람스/스케르초 등
 · 피아노/김태진(울산대학교 교수)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 8일 |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봄의 춤'



열정적인 연주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매년 독주회를 가져온 학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독주회. 조현미는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 Ars String Quartet 리더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00곡
 이르말/바덴 재즈조곡
 바르톡/루마니아 민속 무곡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작품 24 '봄'
 · 클래식기타/고충진 · 피아노/조현선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 15일 | 강영원 리코더 연주회 '봄의 전령'

김해 시링크스 리코더앙상블 종신 음악감독, 부산남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리코더 연주자 강영원의 이야기가 있는 리코더 연주회.

· 반주/박정호

| 22일 | 이진석의 통기타 라이브 콘서트

앨범 '그리움, 그 너머의 시선'을 발매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통기타 가수 이진석의 라이브 무대.

| 29일 | 독일가곡연구회 '봄의 축제'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음악인들로 결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독일가곡연구회 초청 무대.
· 출연/소프라노 김혜정, 장화진, 윤선기, 테너 김현식, 베이스 문동환

권준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1

'Guten Morgen, Herr Beethoven'

3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권준(010-8717-7963)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연주학 박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권준 독주회.

그동안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서정성으로 호평받은 권준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 초기 음악언어를 함축하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2를 들려준다.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예술기획(0505-700-9798)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악원과 Aubervilliers La Courneuve 국립음악원, 파리 Schola cantorum 사범음악원, Jean Wiener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플루티스트 황미리 독주회.

황미리는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 피아노/오성택(대구예술대 교수)

금요해피콘서트

3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1)



김해교향악단, 인플루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그동안 6차례 독주회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온 플루티스트 김유하 초청 금요해피콘서트.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시리즈 1

-비하인드 시네마 '송일곤 감독'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매달 둘째주 화요일 영화의 감춰진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풀어가는 마티네 콘서트.

'이야기하는 지휘자' 서희태의 진행으로,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오직 그대만이'의

송일곤 감독을 초청, 그가 만든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추천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1부/영화 '오직 그대만이' OST 중에서

2부/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중에서

· 지휘, 진행/서희태 · 게스트/송일곤(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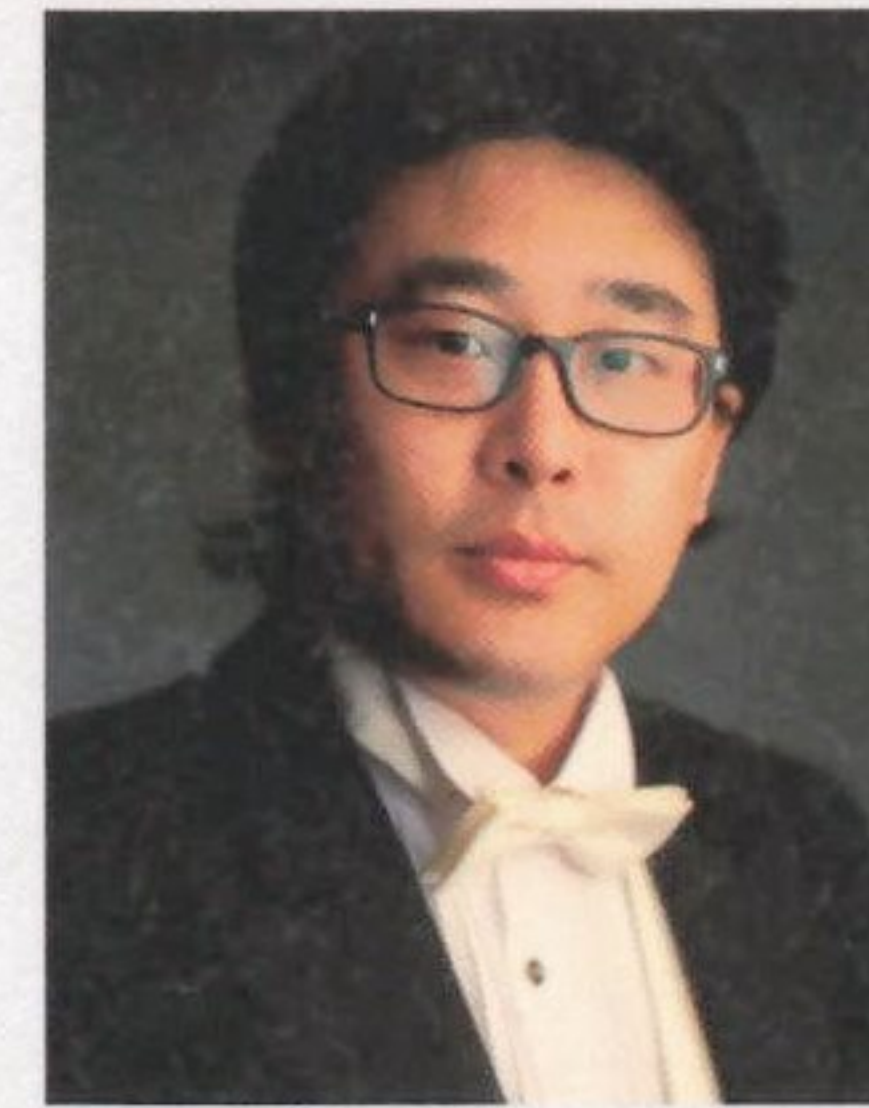
· 연주/부산심포니에타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3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대우(016-869-678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Conservatorio Fausto Torrefranca di Vibo Valentia Diploma, 로마 아카데미 Diploma, A. I. ART. 아카데미 합창지휘

Diploma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최대우는 제 1회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후원 이탈리아 도시 순회연주,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오텔로'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크세르세스' 중 '나무 그늘이여'

칼다라/친구인 숲이여

라벨/월시네의 돈키호테

조두남/뱃노래 등 수곡

조무중, 성민주 듀오 리사이틀

3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조무중

성민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에센 폴크방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에센 폴크방음대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 입학 예정인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과 이화여자대학교와 오스트리아 팔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석사,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사장조 KV. 301
 베토벤/소나타 제 4번 가단조 작품 23
 이차이/소나타 제 4번 마단조 작품 2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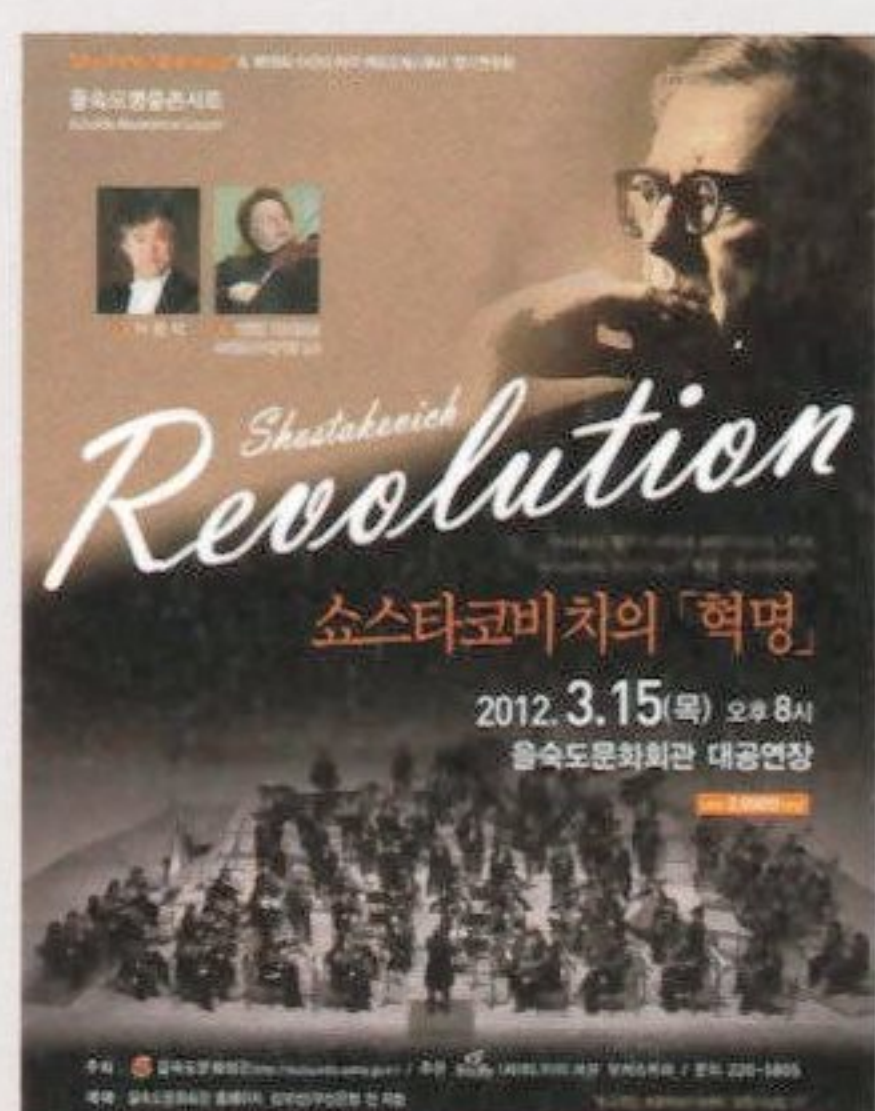
을숙도 명품 콘서트

3월 15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수준높은 클래식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 해온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2년 첫무대. 생동감 있는 하모니의 (사)T.I.F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의 걸작 교향곡 제 5번과 현재 차이코프스키음악원 교수로 재직중인 미하일 가스 디네르의 협연으로 바흐 '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를 들려준다.

재 차이코프스키음악원 교수로 재직중인 미하일 가스 디네르의 협연으로 바흐 '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를 들려준다.

정성흡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미국 줄리어드 음대 및 뉴욕 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iTrio 멤버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흡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282

스카를라티/3개의 소나타

무진스키/Seven 작품 30 등 수곡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해운대 노이(Noi) 여성합창단 창단음악회

3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고봉수(010-4434-6605)



지난해 4월, 노래를 좋아하는 지역 어르신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인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과 해운대 노이 여성합창단이 마련하는 창단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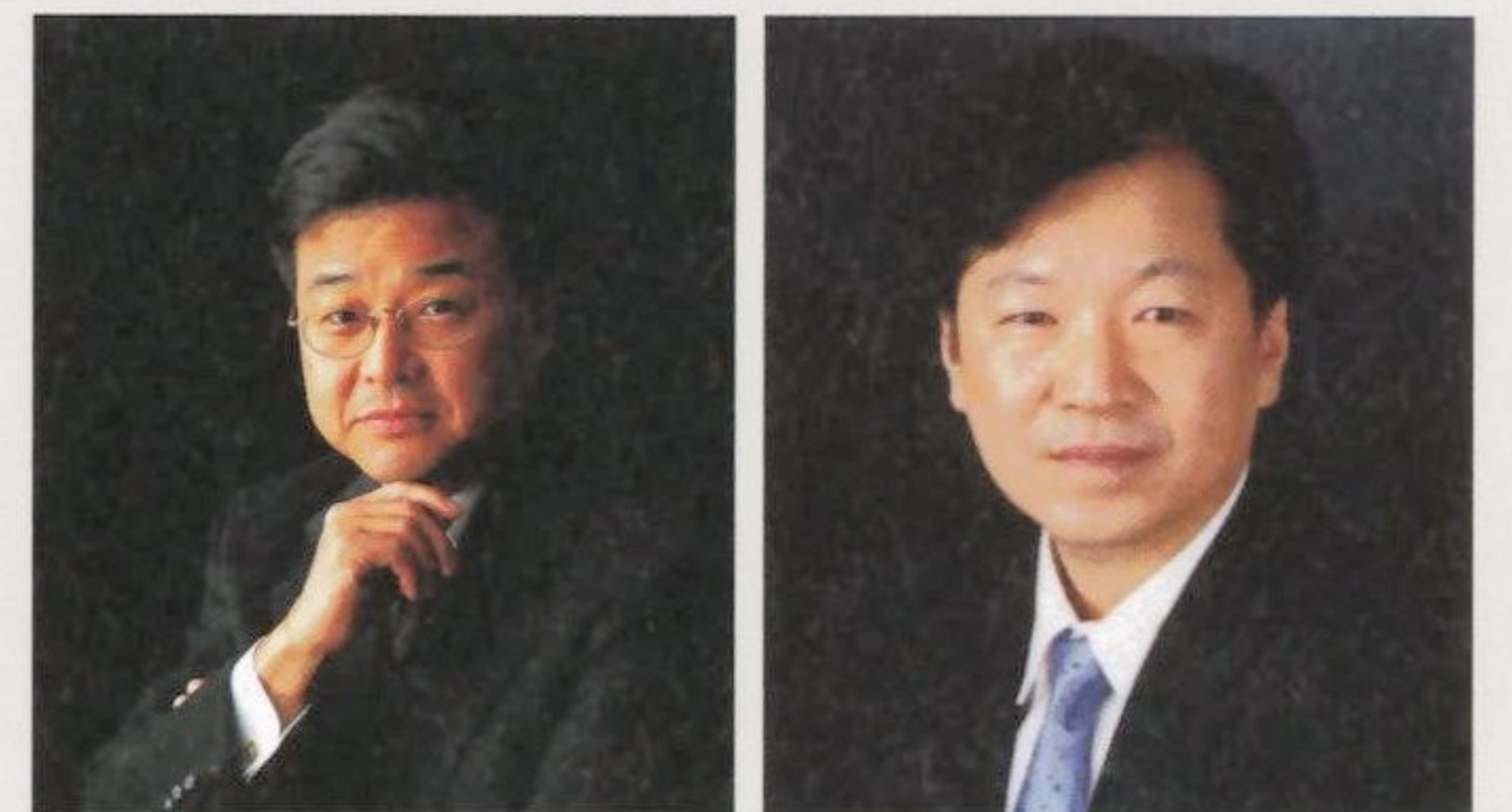
프로그램

몽계구름, 외침, 아 목동아, 아버지, 그리운 금강산, 세노야, Try to remember, 동무생각, 학창시절, 사랑의 찬가, 나물캐는 처녀, 숨어우는 바람소리 등 수곡
 · 지휘/고봉수 · 반주/김신경
 · 특별출연/백재진(바이올린), 신정순(소프라노)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3월 15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이택주

김용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세신포니에타, KT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택주와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함께하는 제 38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위드 스트링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정미경(010-7565-0280)



지난 2006년 실내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위드 스트링 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메신저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 비발디/사계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 그리그/홀베르그 시대로부터
- 협연/김성은(바이올린, 위드스트링앙상블 리더)

부산CBS 음악FM 개국 1주년 기념

All that Music 2012

3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CBS(636-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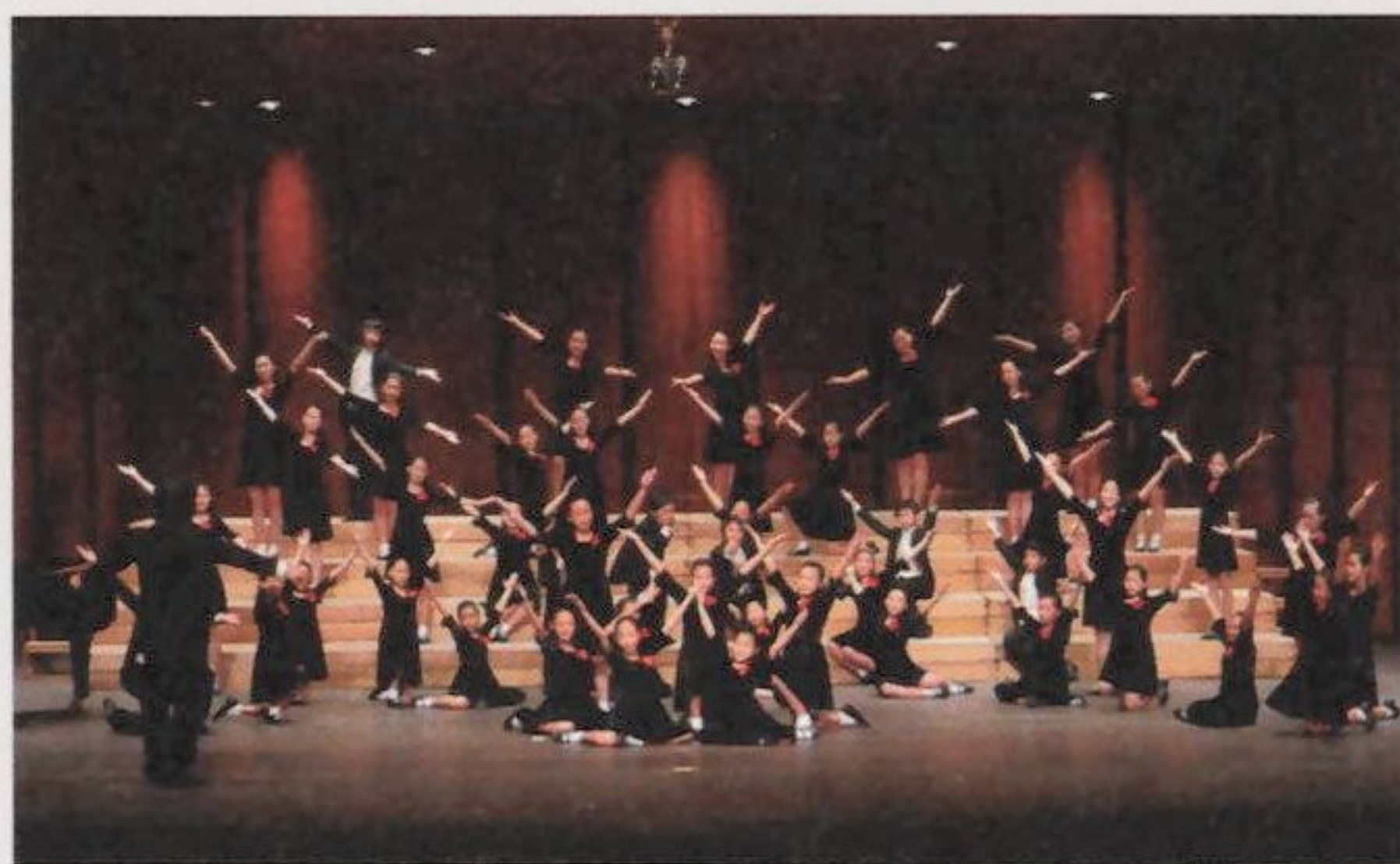
고품격 전문음악채널인 CBS 음악FM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와 뮤지션, 성악가들이 꾸미는 부산 CBS 음악FM 개국 1주년 기념 무대 'All that Music 2012'.

- 출연/가수 헤은이, 박강성,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승일, CCM가수 최인혁, 조수아, 남성5중창단 유엔젤보이스, 부산크리스찬 색소폰앙상블, 부산CBS교향악단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3월 무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이탈리아 Teramo 국립아카데미, Perugia 아카데미, Rovigo Francesco Venezzes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바리톤 최상재와 부산색소폰콰이어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는 색소포니스트 이천우가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 동요메들리(편곡/최석태)/무궁화 행진곡, 어린이 왈츠, 새싹들이다,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 뮤지컬 '슈렉' 중에서/What's up, Duloc?, Travel Song, Who I'd Be Make a Move 등
- 아리랑연곡(편곡/이선택)/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경기도아리랑, 홀로아리랑 등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욱

Grand Concert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010-9334-6105)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마련하는 그랜드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나비부인' '토스카' '카르멘' '리골



레토'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을 들려준다.
 · 출연/테너 박성원, 이철성, 김충식, 소프라노 김영림, 오혜숙, 김정아, 조윤정, 바리톤 유승공, 이희갑, 메조소프라노 김순미, 임혜진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 50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3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청소년 렉처콘서트

3월 27일 **화요일**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1)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2012년 첫 무대에서는 T.I.F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제 1번을 들려준다.

2인 음악회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박소영(010-9239-2259)



홍정표



박소영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Pavia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브릴란떼 앙상블 단장으로 활동중인 테너 홍정표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오르페오 국립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제 5회 'Johannes Brahms' 국제콩쿠르에서 가곡 부문 1위, 아리아 부문 3위를 차지한 소프라노 박소영이 함께하는 2인 음악회.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에르나니' '운명의 힘',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마농 레스코'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안준희

앙상블 엠. 게. 까. 연주회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젊은 음악가들의 모임인 앙상블 '엠. 게. 까.' 무대.

프로그램

사라사테/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나바라 바흐/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쉬클리/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세레나데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등

· 연주/강지원(바이올린), 김혜령(바이올린), 황수희(클라리넷), 김다운(피아노)

황의중 작곡이야기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1972년 작곡에 입문한 후 그동안 우리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산대학교 황의중 교수가 작곡 생활 40년을 기념해 마련한 무대.

198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국악 작곡발표회를 가

진 후 7장의 음반을 발매하는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황의중 교수는 그동안 부산국악작곡가회를 이끌며 창작국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의중은 제 2회, 제 7회 대한민국 작곡상, 제 3회 부산상공회의소 예술대상, 1996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12현 가야금 독주곡 '은하수', 대금, 17현 가야금 이중주 '강마을', 25현 가야금 독주곡 '우락의 춤', 성악곡 '내 마음을 아실이', 해금, 가야금, 첼로 삼중주 '그대를 위한 기도', 25현 가야금 삼중주 '벚노래 변주곡', 성악곡 '내 구름되거든'

· 출연/황의중(노래), 김혜련, 하지희, 이한나, 박경진, 정수유, 최재은, 최유림, 김지우(이상 가야금), 손한별(대금), 최유리(해금), 강신은(첼로), 이진희, 김인균(이상 장구), 김조은(소프라노), 국립부산국악원 실내악단

두레라움 스프링 페스티벌

'春夢(Dream & Fantasy)'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吾園)

3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051)780-6000



실내악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던 첼리스트 양성원이 그동안 자신의 공연을 통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해 왔던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피아니스트 엠마뉴엘 슈트로세와 결성한 다국적 트리오 오원의 첫 부산무대.

'오원(吾園)'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그려진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예술세계에 감명받아 그의 호를 부처 지은 이름이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가단조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나장조 작품 8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73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라단조 작품 49

<http://www.glovil.org> / mail : glovil@paran.com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부산대총장상이 수여되는

제13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2. 4. 7 (토)

- 부 문 : 피아노/작곡/성악/중창/현악/관악/국악/실내악/실용음악
- 대 상 : 유·초·중·고·대 (일반전공 일반비전공)
- 접 수 : 2012년 3월 31일 24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 접수처 : www.contest.co.kr (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 과제곡 : 자유곡 1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부산대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 각 부문별 각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전체대상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국제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약도 : 홈페이지 참조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문 의 | (주)WSM(1566-5490)



지난 20년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온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소울, 가스펠, 재즈댄스, 발레, 힙합 등 못하는게 없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윤형빈쇼 with Friend

1월 1일(일)-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윤형빈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형빈소극장(610-1003)

부산 최초의 개그 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주말 마련하는 개그쇼로,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직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1월 13일(금)-OPEN RUN
 화-수요일 오후 8:00, 목-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9: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평일 오후 5:00 1만 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허둥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러브 & 코믹극 '오 사랑'

2월 3일(금)-3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에저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미니티켓(1600-1716)



대학동창인 승표와 해준, 그리고 이혼을 거부하는 승표의 아내 서경, 세 주인공을 둘러싼 미성숙한 성인남녀의 코믹로맨스를 그린 노래가 있는 연극 '오 사랑'.

연극 '옥탑방 고양이'

2월 10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2010 대한민국 국회대상 수상, 인터파크 관객평점 9.6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연극 '옥탑방 고양이'.
 청춘남녀가 옥탑방을 두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로맨스

를 그린 작품으로, 청춘의 아픔과 상처, 꿈에 대한 도전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원작/김유리 · 작/박은혜 · 연출/문아영
 · 출연/장지우, 윤정빈, 황선화, 김지현, 박상현 외

연극 '놈, 놈, 놈...그리고 女'

2월 10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수요일 공연없음) **미리내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아센(504-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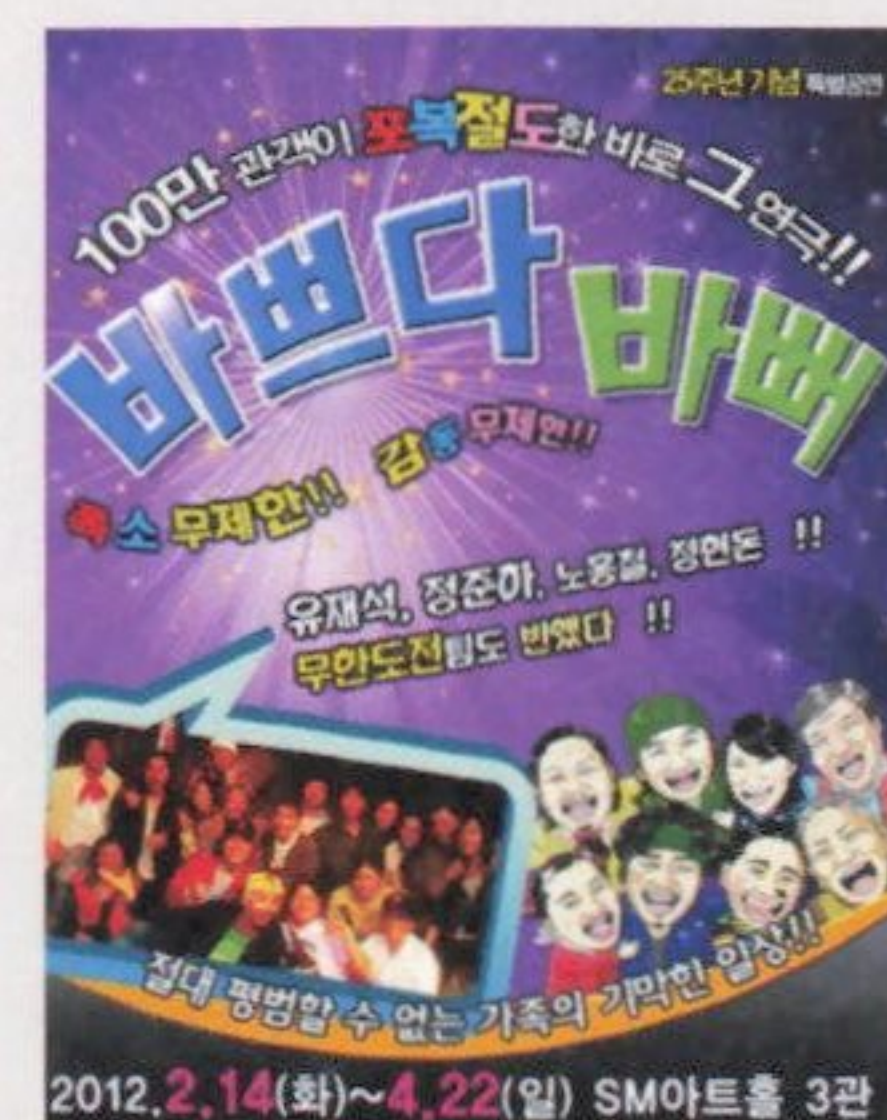
당첨된 로또복권 쟁탈을 위한 탐욕과 욕망, 그 속에 펼쳐지는 현대인의 웃지 못할 슬픈 자화상을 그린 연극 '놈, 놈, 놈...그리고 女'.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강철웅, 박규남, 한성륜

연극 '바쁘다 바빠'

2월 14일(화)-4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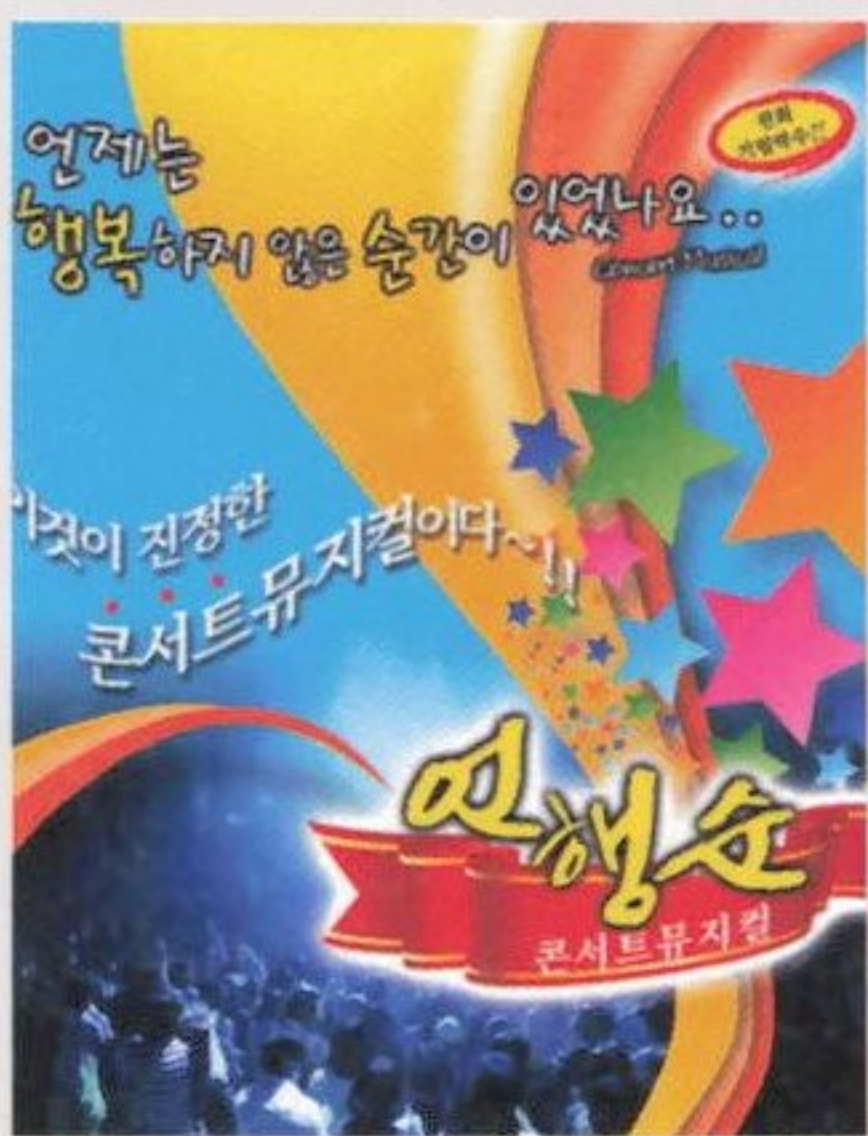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개성만점 가족의 일상사를 통해 가난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연극.
 빠른 전개와 시종일관 터지는 웃음코드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월 14일(화)~3월 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웃음과 감동이 있는 1막무대에 이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스탠딩 콘서트가 펼쳐진다.

낭만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2월 15일(수)~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대학생 2만원
초중고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빠른 스토리와 힙합풍의 춤과 랩으로 새롭게 창작한 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21세기 뉴욕을 배경으로, 로미오를 사랑한 캐플릿

가의 입양아 '주리'와 주리를 '줄리엣'으로 알고 사랑한 '로미오', 줄리엣을 사랑하는 모슬렘의 아들 '하킴',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을 버리고 하킴을 사랑한 '줄리엣' 등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 작가 특유의 감각적 언어로 새롭게 살아난다.

·작/박현철 ·연출/이윤주 ·음악/강중환
·출연/박정무, 배보람, 김해선, 조영근, 이창섭,
경제미, 김도훈, 박병성, 조석준, 이민안 외

노래가 있는 연극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2월 22일(수)~3월 31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입장료 | 일반 2만 2천원(예매시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청년실업 100만 시대 1020 철수와 영희에게 보내는 4050 철수와 영희의 응원과 노래가 있는 연극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작, 연출/이성민 ·작곡/이중화

매직&버블쇼-부산

2월 25일(토)~3월 11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후 1:00, 3:00(평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신기한 미술과 환상적인 버블쇼가 함께하는 무대.



연극 '잇츠유'

3월 1일(목)~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특종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두 남녀의 서로 다른 사랑을 위트 넘치는 대사속에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츠유'.

청춘정담 : 우리는 사랑일까

3월 2일(금)~4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과 사랑이 끝나가는 연인, 사랑을 했던 연인 등 세 커플을 통해 일상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창작극.

·작/김효진
·연출/도정우

·출연/이정비, 신동훈, 이채현, 조아라, 박준성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액션라이브쇼 '파워 레인저 미라클포스'

3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4만5천원 · S석 3만5천원
A석 2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WSM(1566-5490)

지구를 지키는 다섯 영웅 '파워 레인저'의 활약을 그린 작품으로, 화려한 불꽃쇼와 플라잉 액션 등 기존 연극과는 다른 역동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액션무대가 펼쳐진다.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3월 3일(토)-4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3/14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뮤지컬 '우리들의 청춘 롤리폴리'

3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8:00,
1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8만 8천원 ·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 A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WSM(1566-5490)



대한민국에 복고열풍을 일으켰던 걸그룹 티아라의 히트곡 '롤리폴리'의 뮤직비디오를 새롭게 창작한 복고풍 주크박스 뮤지컬. 1970~80년대 히트 팝송들과 경쾌한 복고댄스, 티아라의 효민, 소연과 최고의 뮤지컬배우 박해미 등 화려한 출연진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너, 붉은 사랑'

3월 13일(화)-18일(일), 3월 27일(화)-4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3월 21일(수)-24일(토)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일터소극장(635-5370)



일제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봉건 지주계급의 횡포에 맞서는 여주인공의 삶을 그린 강경애 소설 '인간문제'를 원작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뮤지컬 '너, 붉은 사랑'.

· 원작/강경애 · 연출/김기영
· 출연/김선관, 조기정, 박령순, 신현우, 김주원 외

연극 '라이어 1탄'

3월 16일(금)-4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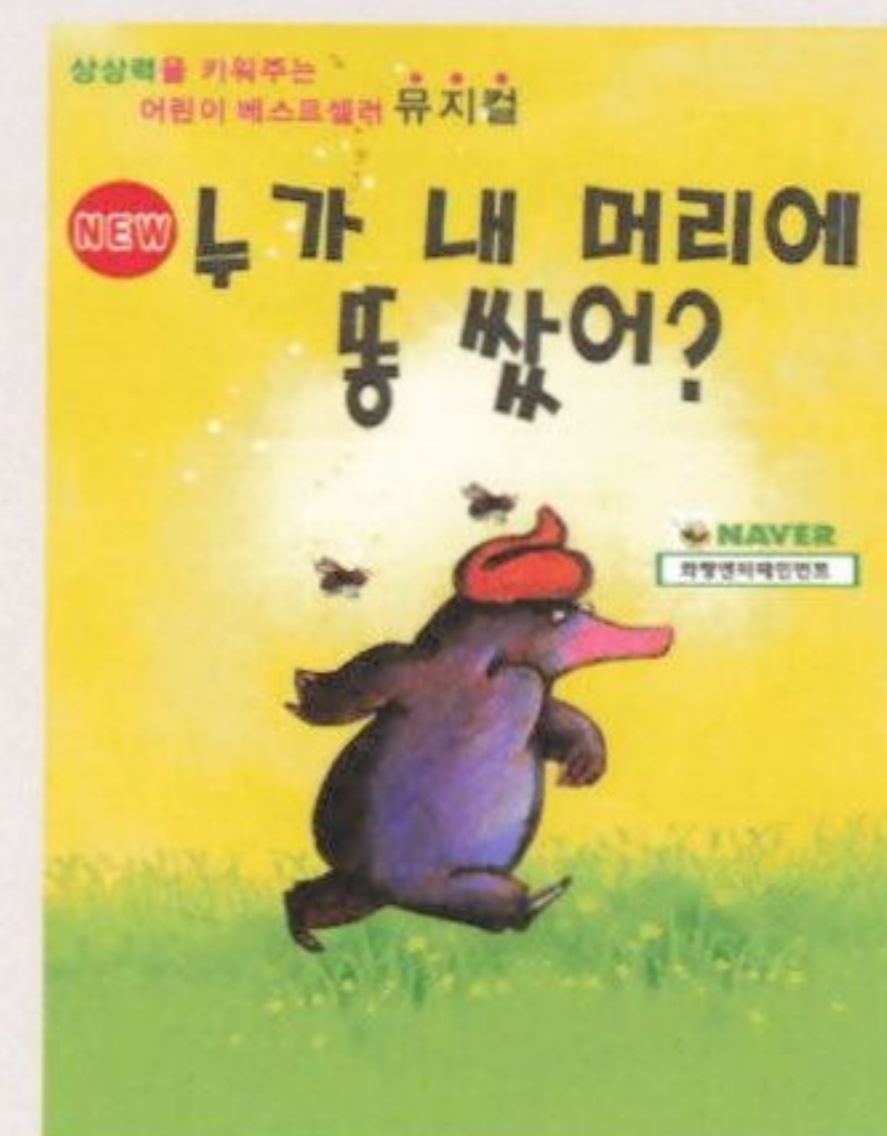


두집살림을 하는 주인공의 이중생활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펼쳐지는 폭소 코믹극.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이현규, 김효중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똥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김영주
· 음악/김두환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3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의 | MBC롯데아트홀(1688-8998)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로 사랑받고 있는 '막돼먹은 영애씨' 뮤지컬 무대. 막돼먹은 세상에 맞서는 막돼먹은 영애씨의 고군분투기를 통해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웃음과 감동속에 펼쳐진다.

**두레라움 스프링 페스티벌
'春夢(Dream & Fantasy)'**

뮤지컬 스타 콘서트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5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남경주 홍지민

국내 최고의 뮤지컬 스타 남경주와 TV와 영화, 뮤지컬을 넘나드는 멀티테이너 홍지민, 주목받는 젊은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스타 콘서트.

**두레라움 스프링 페스티벌
'春夢(Dream & Fantasy)'
감독! 무대로 오다 '청춘의 십자로'**

3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필름인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를 변사의 맛깔스런 해설과 라이브 공연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
· 연출, 재구성/김태용 · 변사/조희봉
· 노래/임문희, 김대중 · 악사/변희석, 신지아

**2012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우렁각시'**

3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http://www.bstheater.or.kr>)

신기한 마법과 해학이 담긴 우리나라 전통 민담 '우렁각시'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 선보인다.
· 작, 연출/오계영

**2012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에저또 '공기인형'**

4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2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0,000원)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http://www.bstheater.or.kr>)

그림 속 여인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심장이 없는 가상의 창조물로 치유하려는 고독한 현대인의 심리를 그린 창작극.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2012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개 짚는 날'**

4월 4일-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0,000원)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http://www.bstheater.or.kr>)

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창작극 '개 짚는 날'.
'개 짚는 날'은 제 4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작/이경진 · 연출/강성우

Dance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True/本当のこと

3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8:00
L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LG아트홀 부산(661-8701)



일본의 미디어아트를 선도하는 10명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무용수의 몸에 부착된 센서와 무대의 디지털 기계를 이용, 공연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빚어낸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선보인다.

을숙도의 '수요일은 춤'

3월 21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 무용가들의 발표무대 '수요일은 춤'. 신라대학교 무용과 재학생들이 출연, 패기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도/정신혜

Concert

집시기타의 마술사 박주원 부산 콘서트

3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균일 4만4천원
문의 | 프리덤 콘서트(070-8271-5549)



집시기타의 마술사 박주원 첫 부산콘서트. 박주원은 지난해 11월 발매한 2집 음반 '슬픔의 피에스타'로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한국 연주음악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딕펍스(DICKPUNKS) 2012 투어 콘서트

3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프리덤 콘서트(070-8271-5549)

핑크계의 신진 이단아 딕펍스의 부산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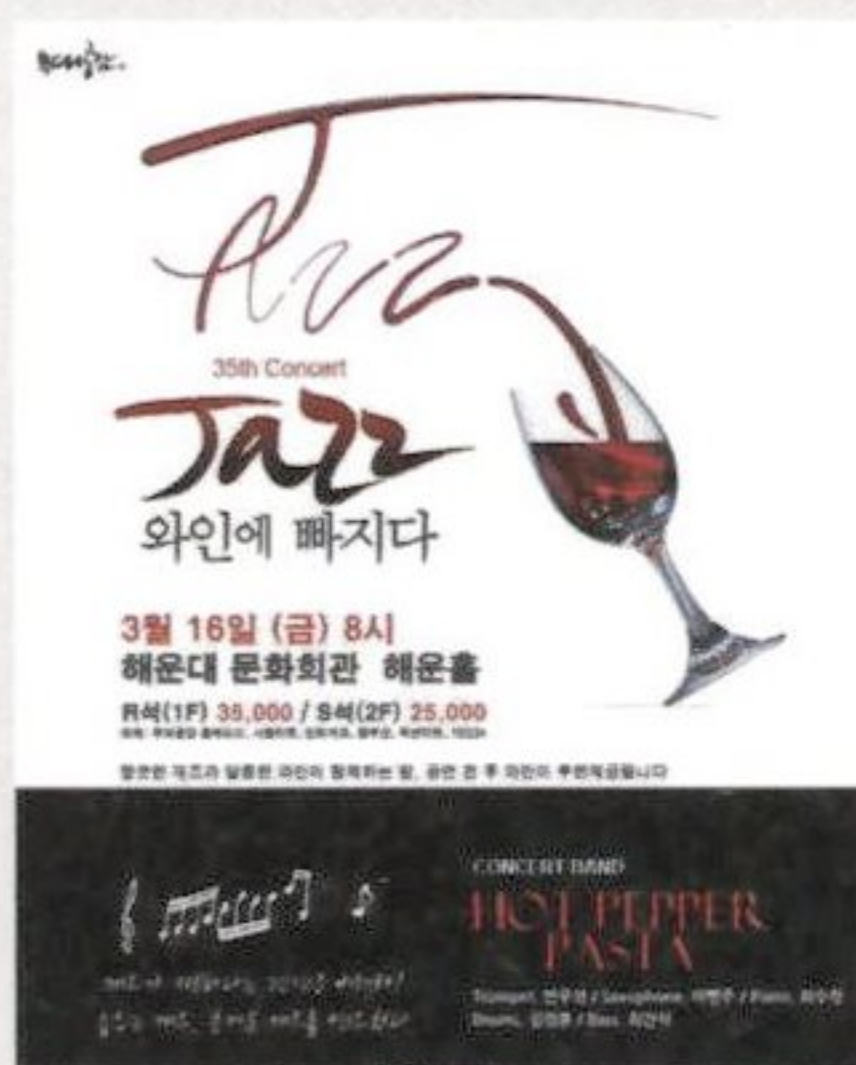
'나는 가수다' 콘서트

3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 VIP 12만 1천원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 A석 7만 7천원 · B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WSM(1566-5490)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파 가수들이 펼치는 감동의 무대.

Jazz 와인에 빠지다 35번째 콘서트

3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 S석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한달에 한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달콤한 시간 Jazz 와인에 빠지다 35번째 무대. 재즈음악의 클럽음악화를 외치는 재즈그룹 'Hot Pepper Pasta'가 흥겹게 놀 수 있는 재즈

음악을 선보인다.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투어콘서트

3월 24일 토요일 오후 4:30, 8:00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입장료 | VIP 11만 1천원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20012년 몽니 단독 콘서트

3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4만 4천원
문의 | 프리덤 콘서트(070-8271-5549)

두레라움 스프링 페스티벌 '春夢(Dream & Fantasy)' 콘서트 '청춘연가'

3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9만원 · A석 8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감미로운 목소리의 유열, 여심을 울리는 목소리 최성수, 열정적인 바리톤 김동규가 마련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 '청춘연가'.

Movie

씨네 리플레이

2월 7일(화)-3월 22일(목) **영화의전당**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균일 4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2007년 시네마테크 부산 시절부터 시작된 부산의 대표적인 영화 상영프로그램 '씨네 리플레이'.

2011년 개봉한 예술영화 중 고레에다 히로카츠, 구스 반 산트, 테렌스 멜

릭, 페드로 알모도바르, 다르덴 형제 등 거장들의 신작과 평단과 관객들에게 주목받은 화제작 23편이 상영된다.

Event

대청갤러리 청년작가 작품 및 전시기획 공모

2월 15일(수)-3월 9일(금) **대청갤러리**
문의 | 가톨릭센터(462-1870, www.bccenter.or.kr)

가톨릭센터에서 역량있는 청년작가와 전시기획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공모전.

- 장르/시각예술 전반
- 응모자격/만 19세이상~만 40세 미만(개인 및 그룹)
- 선발인원/작품공모 6명, 전시기획공모 2명

시울림 시낭송회

제 110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3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김해경, 박윤규, 이봉희, 정의태, 허영숙

Gallery

한-아세안 현대 미디어아트전 'CROSS+SCAPE'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3월 1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한국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안 1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사진작가 27명의 작품을 통해 아시아 동시대 예술을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정인성, 시각과 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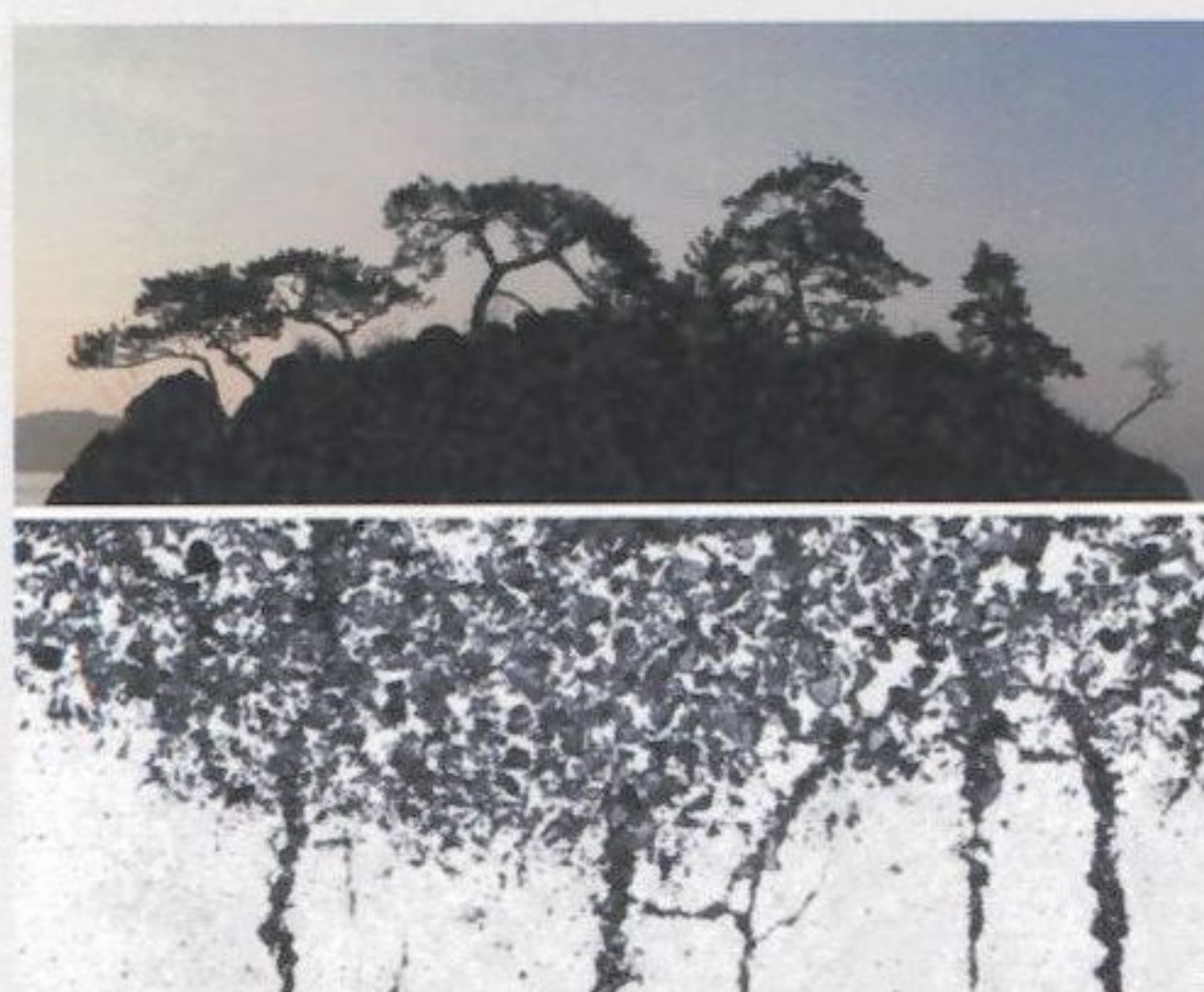
12월 29일(목)~2012년 3월 1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구주환 개인전 '겹 혹은 결'

2월 17일(금)~4월 13일(월)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문 의 | 토요타 아트스페이스(080-855-0007)



사진과 시각디자인을 접목시켜 독특한 영상미를 구축해온 작가 구주환 작품전.

세월의 층과 겹에 의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또 다른 자연의 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소나무'를 소재로 한 '겹 혹은 결' 시리즈 21점을 선보인다.

제 6회 윤영준 개인전

2월 22일(수)~3월 2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Still Life-경계에 서서

산복도로...그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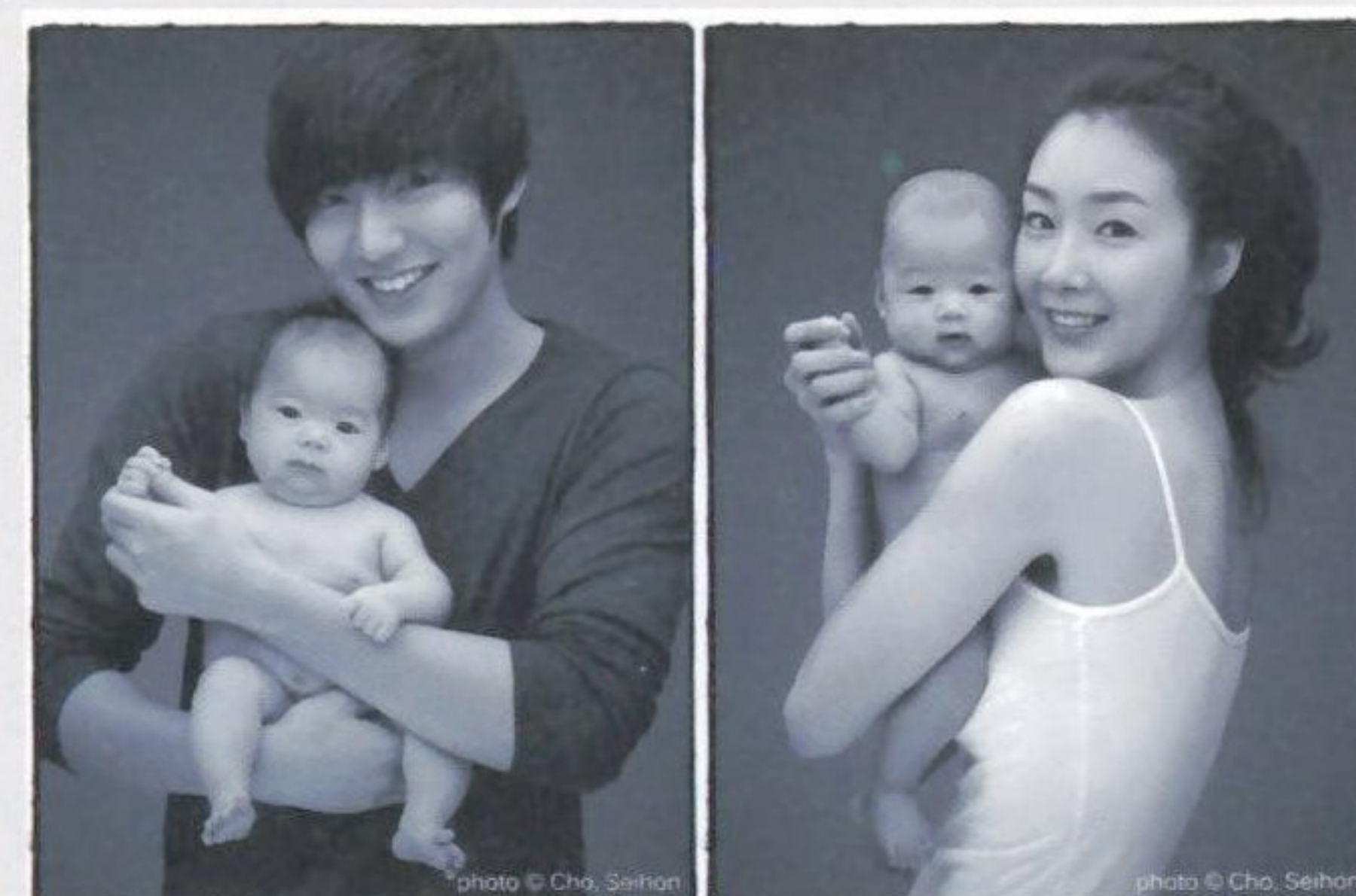
2월 24일(금)~3월 9일(금) **가양갤러리**
 문 의 | 가양갤러리(752-7830)

홍철순 작품전 '시간의 흔적'

3월 1일(목)~3월 24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 9 '눈빛'

3월 2일(금)~3월 14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매년 마련해온 사진작가 조세현 '사랑의 사진전'.

2012년 대청갤러리

송암 윤정섭 가족 초대전

3월 3일(토)~9일(금) **대청갤러리**
 문 의 | 가톨릭센터(462-1870)



부자지간인 민화작가 송암 윤정섭과 도예가 옥재 윤상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초대전.

한국적인 미의식이 담겨져 있는 해학적인 호랑이 민화와 시각예술의 모든

기법이 함축된 종합예술인 도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과 女전

3월 5일(월)~3월 14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문선경 서양화전

3월 5일(월)~3월 14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송승용 '꿈꾸는 공간'展

3월 16일(금)~4월 4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침대, 테이블, 의자 등 넓은 공간 속 아늑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송승용 가구디자인전.

타워갤러리 기획 2012 '春-美'

3월 16일(금)~3월 31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최훈철 개인전 '터-Life Story II'

3월 17일(토)~3월 25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컨사사 심포니

제 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축제 경쟁부문 대상 수상작
공고판 '베토벤 바이러스'

18년 전에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서는 험벗고 굶주린 자들이 스스로 악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음악이 아닌, 그들을 지배하고 약탈했던 서유럽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것은 킴방기스트 오케스트라의 실제 이야기다.

음악을 빵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쓰레기 투성이의 흙먼지 자욱한 길바닥에서 바이올린과 첼로와 플루트를 연주한다. 길거리 콘서트를 바라보는 무표정한 사람들은 이미 영혼마저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킴방기스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아름다운 노래의 하나일 뿐이고, 베토벤 음악에 아프리카 리듬이 살아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아프리카를 더 사랑하는 세 사람, 비쉬만, 바에르, 카피톨린 트리오가 만들어내는 영상과 음향은 대단히 사실적이며 세밀하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바렌보임과 볼레즈의 특별한 콘서트

바렌보임은 뤼르 피아노 페스티벌을 통해서 낭만시대를 상징하는 두 위대한 피아노 작곡가들의 탄생 200주년을 차례로 기념하였다. 2010년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남긴 두 편의 협주곡을 연주했으며(Arthaus를 통해 영상물로 발매), 2011년에는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역시 그가 남긴 두 편의 피아노협주곡을 한 자리에서 연주하였다. 1년 전에는 애제자와 같은 젊은 후배 지휘자인 안드리스 넬손슨가 지휘를 맡았던 반면, 이번 콘서트에서는 바렌보임이 존경해마지않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인 피에르 볼레즈가 노구를 이끌고 포디움에 올랐다. 본 콘서트는 또 한 사람의 거물 작곡가를 함께 기념한다. 바로 리스트의 절친이자 사위였던 바그너다. 리스트의 협주곡들과 함께 바그너의 '파우스트' 서곡과 '지크프리트의 자장가'가 연주되었고, 앙코르로 연주되었던 리스트의 '위로' 3번과 '잊혀진 왈츠' 1번까지 수록되었다. 본 콘서트의 오디오 CD는 그라모폰 2012년 1월호의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되었다.



여행자의 노래 6집

여행자의 노래 6번째 신보!
구두를 잃어버린 자의 눈물 같은 노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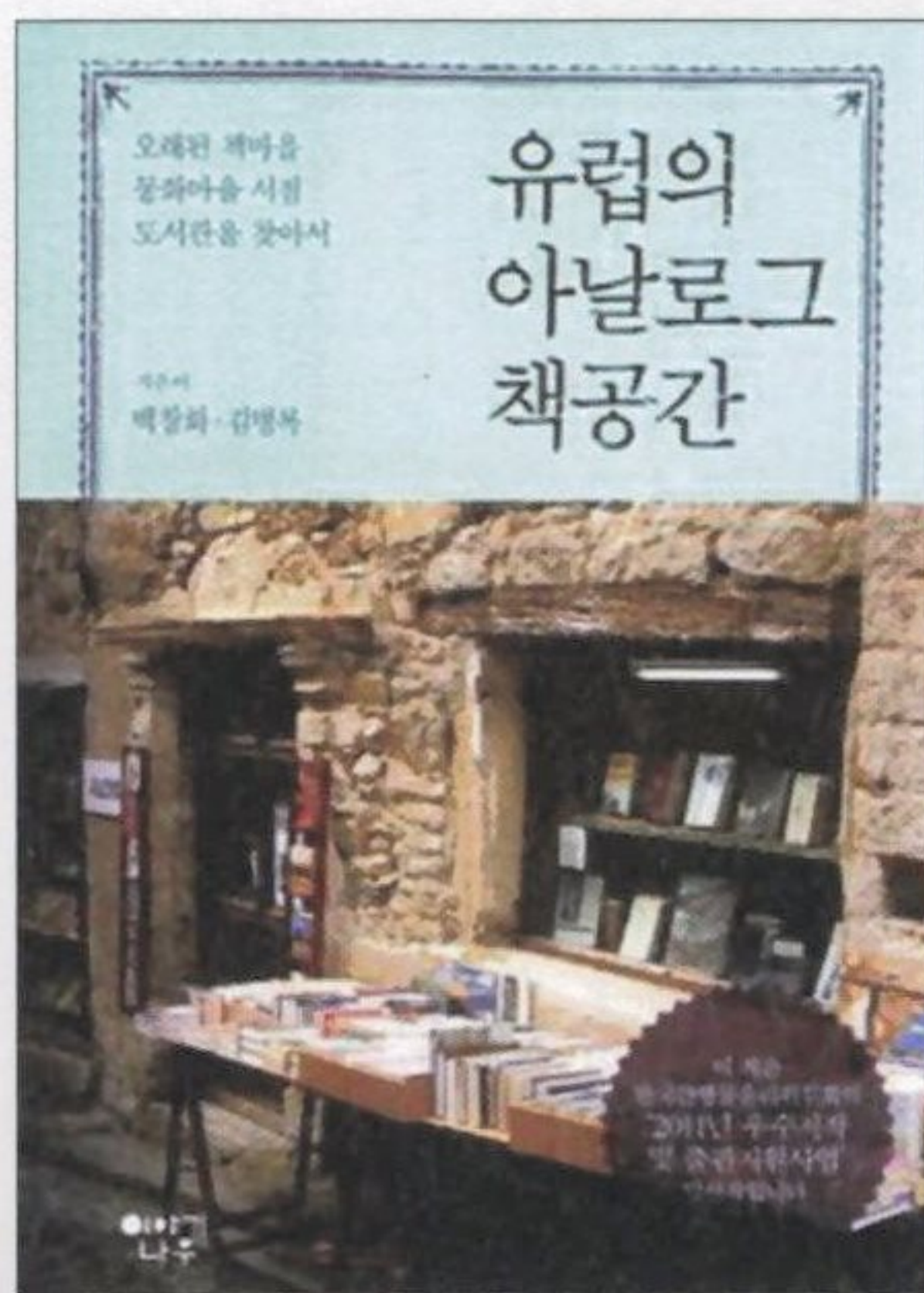
스테디셀러로 오래 사랑받고 있는 떠돌이별 임의진의 <여행자의 노래>는 월드뮤직 마니아들의 수집목록이다. 시인, 수필가, 고독한 여행자 임의진의 특별한 선곡은 비탈진 산길을 구르는 우체부의 바퀴소리만큼 축축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들려주고 있다. 사진작가 김홍희의 어김없는 동행과 엮서 선물도 포함되어 있다. 여행을 떠나지 못한, 구두를 잃어버린 자의 눈물 같은 노래들. '벨 오브 할렘'을 부른 데이브 롤링 머신은 숨겨진 보석 같은 블루그래스 포크밴드, 오랜 경력의 램브첵의 등장은 마땅한 재림이며 밥 딜런의 노래를 재해석한 노르웨이의 포크밴드 프레드러스, 조 바르베이리와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함께 노래하는 '말레그리아'를 비롯, 돈 맥클린의 명곡 '앤 아이 러브 유 소'를 부른 아일랜드 가수 플라인 스킨의 켈틱 사운드 등등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며 여행은 시작된다. 아련한 젓대소리와 잊을 수 없는 기타 선율, 순례자의 성긴 목소리가 뒤섞인 노래로 여기 여섯 번째 여행기의 대단원을 마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조선여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음 / 글항아리
148p / 2만 3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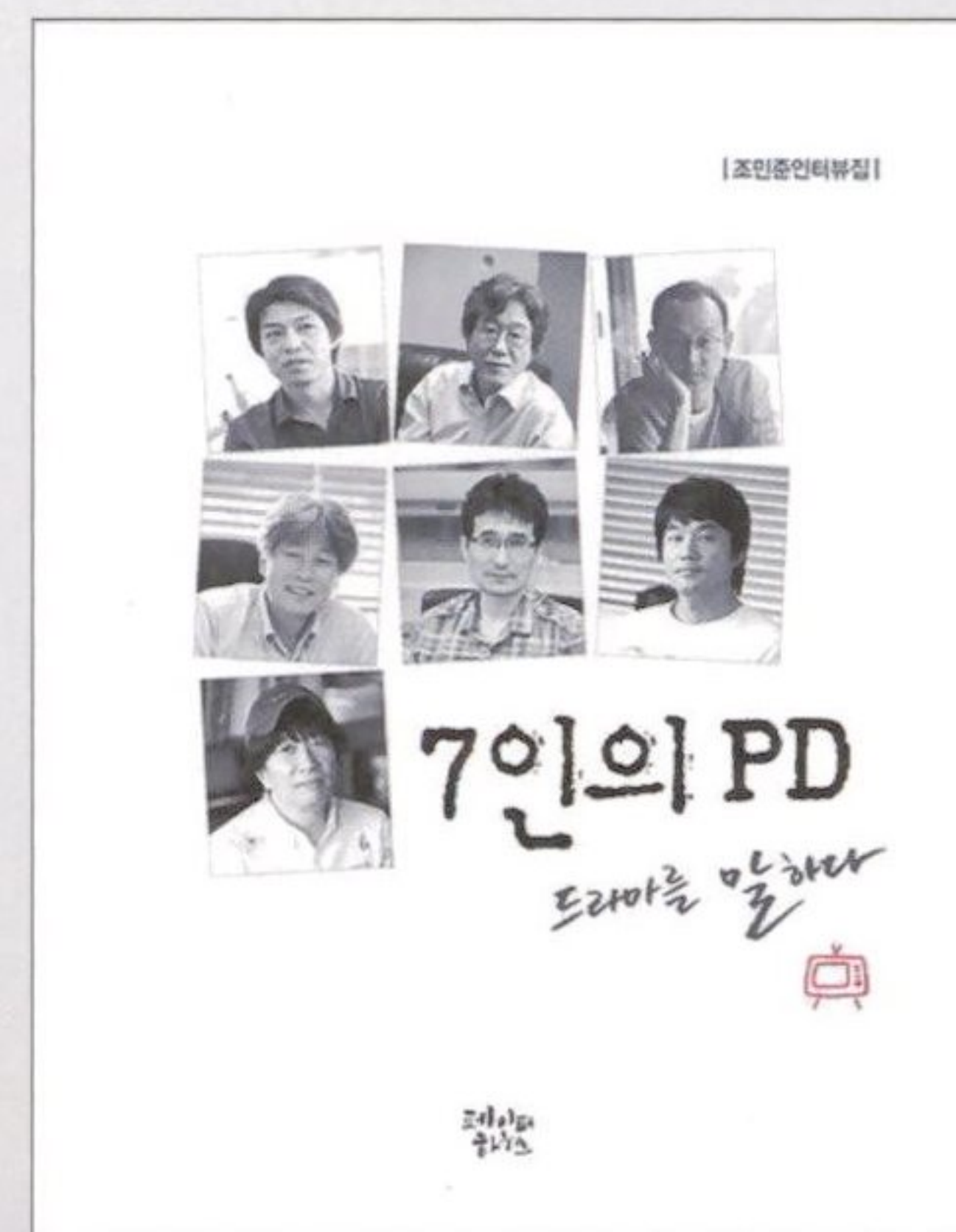
이방인들에게 조선과 식민지 근대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와서 무엇을 보고 느꼈으며, 그들의 기록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을까? 조선시대에는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인조차 함부로 들어와 사는 것이 금지되었고, 합법적으로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지만, 조선에 왔다 간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 책은 조선초기부터 근대시기까지 조선을 다녀간 이방인들의 여행을 다루고 있다. 세종 시기에 조선을 다녀간 명나라 칙사들부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사행과 같은 국가간 사신 왕래, 하멜로 대표되는 표류, 학술조사 차 배를 타고 건너온 학자들의 여행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행기록을 전문가들의 꼼꼼한 사료검토와 풍부한 상상력 및 관련된 도판으로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소설 '강철군화'로 유명한 미국의 급진좌파 사회주의자 잭 런던(1876~1916)은 조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상을 가졌다. 제 5대 조선 천주교 교구장을 지낸 프랑스인 마리 다블뤼 주교는 조선 사람들이 따뜻한 가족애를 지녔다고 기록했다. 이방인이 남긴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당시 조선의 현실과 문화를 돌아본다.



유럽의 아날로그 책 공간

백창화·김병록 지음 / 이야기나무
355p / 1만 5천원

2002년부터 작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해 온 백창화·김병록 씨 부부가 유럽의 책 공간을 찾아 한 달 넘게 여행을 다녀왔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35일 동안 4개국을 여행하며 유럽이라는 사회의 책 공간과 책 문화를 들여다보고, 도서관과 서점, 유럽 책 마을과 동화마을 등 각각의 주제별로 써 내려간 글을 묶어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퐁피두 도서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책을 사랑하는 독자와 작가의 영혼이 만나는 작가 기념관인 '로알드 달 뮤지엄' 등을 살펴보며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책 공간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오래된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이 오롯이 담겨있다. 연간 100만 권의 책이 팔리고 일 년이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영국 헤이온와이 책마을은 30여 개의 책방이 각기 다른 주제의 책을 다루고 있어, 책방마다 개성으로 넘친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무대인 알프스의 작은 마을은 동화 한 편으로 온 마을이 먹고 산다. 유럽에는 이런 동화마을이 적지 않다. 유럽의 책 공간을 돌아보는 동안, 서점이 점점 사라져가고 도서관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7인의 PD

조민준 지음 / 페이퍼하우스
436p / 1만 8천원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드라마를 만드는 PD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걸까. 국내 최초의 드라마 전문 비평지 <드라마틱>의 창간 멤버이자 편집장이었던 저자 조민준이 '드라마 연출의 요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7인의 PD를 만났다. <풀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의 표민수,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윤철, <아줌마>, <하얀 거탑>의 안판석, <부활>의 박찬홍, <다모>의 이재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고개 숙인 남자>의 황인뢰, <순풍산부인과>, <지붕 뚫고 하이킥>의 김병욱 씨 등 우리 시대 7인의 PD들이다. 영화나 연극과는 다르게 드라마는 그저 리모컨 버튼 하나만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만나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가슴이 턱 막히는 진한 여운을, 박장대소하게 하는 유쾌함을, 감정이 터져 나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인간사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응축해 내어놓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녹아 있는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음향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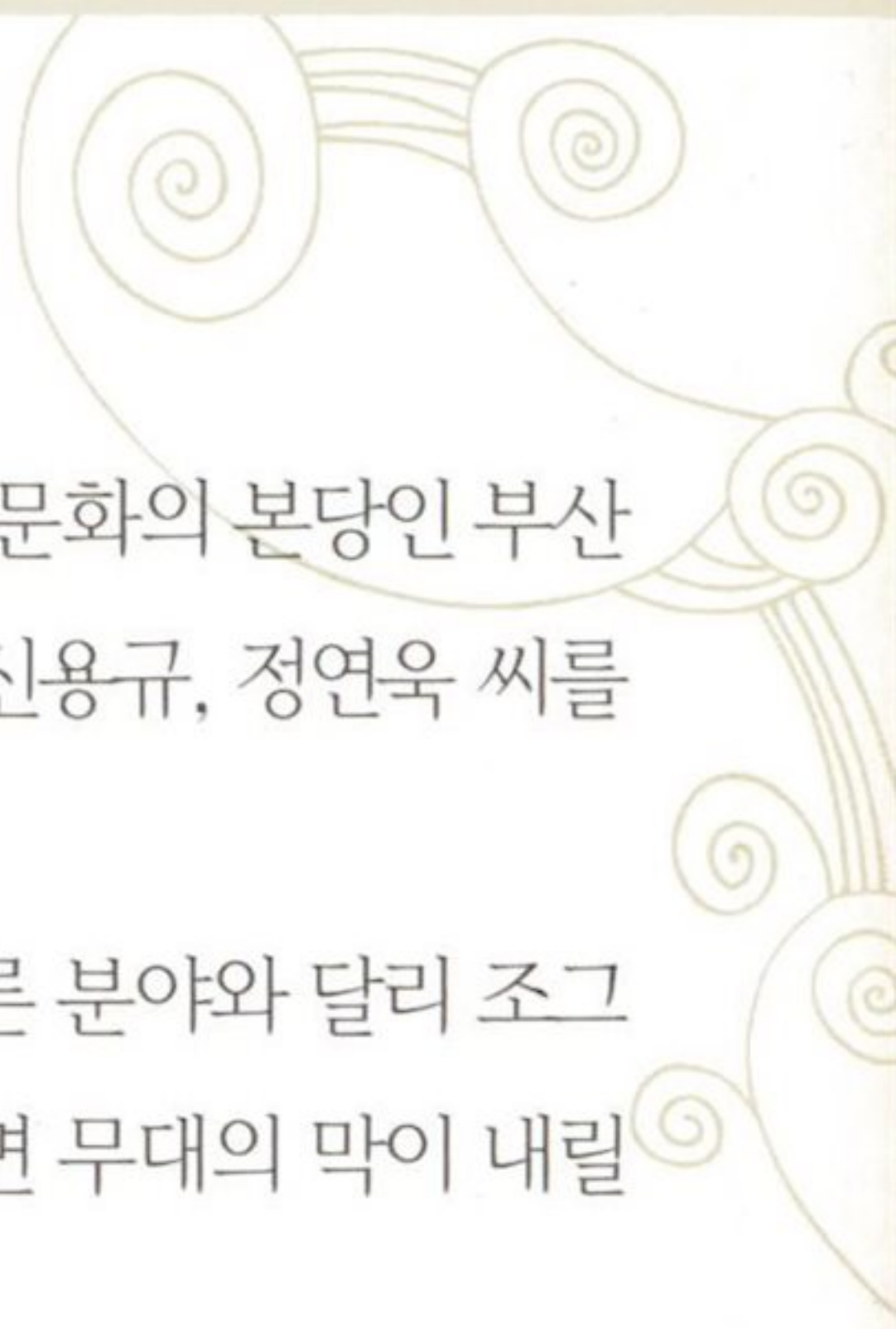
3월

부산문화회관 소식

3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3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3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꿈나무소망심기공연'이 부산지역 6개 복지관과 구포도서관에서 펼쳐진다.

3/2(금)	10:00	남구노인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14: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3/5(월)	11:0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3/7(수)	10:30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3/8(목)	13:0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3/9(금)	15:0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3/10(토)	15:00	구포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무대를 얼굴이라 본다면 조명은 눈, 음향은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 공연이 시작되고 막이 내릴 때까지 관객들이 듣는 모든 ‘소리’를 다루는 사람들, 바로 무대음향 엔지니어들이다. 현재 부산문화의 본당인 부산 문화회관 음향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인수 음향감독을 비롯해 이범호, 백한길, 신용규, 정연욱 씨 등 모두 5명. 2년 전 발령받은 신용규, 정연욱 씨를 제외하고는 경력만 20년에 달하는 그야말로 ‘소리의 달인’들이다.

다목적홀이라는 부산문화회관 특성상 그들이 책임져야 할 소리는 클래식 연주에서부터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하다. 다른 분야와 달리 조그 만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음향분야인 만큼 하루하루가 TV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그들은 공연이 있는 날이면 무대의 막이 내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요즘은 4월 한달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리는 대형 뮤지컬 ‘미스사이공’ 개막을 앞두고 그 준비에 여념없다. 공연이 많아지면 그들 또한 덩달 아 바빠진다. 5명의 직원이 세 곳의 극장과 국제회의장을 맡고 있다보니 야근은 필수. 한달에 반 이상은 주말 근무도 서야해 가족으로부터 원성을 듣 기 일쑤다. 지난 2004년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인수 감독과 이범호, 백한길 씨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전문성을 인정받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라 언제든 발령나면 다른 근무지로 가야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선의 무대가 끝나고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 중 일부는 무대 뒤 스태프들에게 보내는 박수라 생각합니다.”

그 감동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음향팀은 언제나 무대 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상임단원 (2명)	제2바이올린 수석 1명 첼로 수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 • 지정곡 : 〈협주곡〉 Vn. 모차르트 협주곡 제 5번 K.219 제 1악장 Vc. 하이든 협주곡 D장조 제 1악장 〈오케스트라 엑셉트〉 원서접수시 배부 ※반주자 없이 진행
비상임단원 (10명)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호른 1명 트럼펫 2명, 트롬본 1명 튜바 1명, 타악기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 • 지정곡 : 원서접수시 배부 ※반주자 없이 진행

Ⅰ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2년 3월 5(월)~3월 14(수) 17:00까지

접수안내

- ▶ 공휴일 · 토 · 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는 원서접수 후 배부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1~6)
 (우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Ⅰ 세부전형

실기전형 3월 26일(월) 10:00 교향악단 연습실

합격자 발표 3월 28일(수) 14:00

면접전형 3월 30일(금) 10:00 부산문화회관 회의실

최종발표 4월 2일(월) 14:00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공고란 참조

정기회원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매서운 한파가 한풀 꺾인 지난 2월 10일, 2월 테마여행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2월의 테마여행지는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국악관현악단 단원 조은경, 정겨운, 최요셉 씨가 함께 동행해 정기회원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부산을 떠나 두시간여를 달려 고령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대가야의 古都' 고령을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부터 관람을 시작했다.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 왕릉이 모여있는 주산 기슭에 자리잡은 '대가야왕릉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 그리고 우륵선생이 음악활동을 펼쳤던 가얏고마을에 자리잡은 '우륵박물관'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가야역사관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고 마중나온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대가야역사관'은 대가야의 여명과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꾸며져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인근에 자리한 '대가야왕릉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제 44호 분'을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이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법, 순장자들의 구체적인 매장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박물관을 나서자 이번에는 박물관 뒤편 산기슭에 줄지어 선 고분군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4월의 테마여행

경주 |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노천박물관 남산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업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마감 3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3월 테마여행 당첨자

Table with 2 columns: 신규가입자 (New Registrants) and 업서당첨자 (Application Winners). Lists names and addresses of participants.

오전 일정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대가야역사관에서 10분여거리 떨어져 있는, 우륵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가얏고마을로 걸음을 옮겼다.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고 연주한 곳으로 알려진 가얏고마을은 가야금 소리가 정정하게 들린다고 하여 '정정골'이라고도 불렸다. 최근에는 우륵 생가를 복원하고 가야금 공방과 체험관, 우륵기념탑, 우륵산책로 등을 조성하면서 가야금을 테마로 한 체험학습마을로 거듭났다. 우륵박물관 관람에 앞서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골밥상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우륵박물관'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과 가야금'을 주제로 한 이색 테마박물관으로, 우륵과 가야금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가야금의 발전사, 가야금 명인 등 우륵과 가야금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우륵박물관 관람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이번에는 직접 가야금을 연주해보기 위해 인근 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체험관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경북도립국악단원 안정은씨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악보에 표시된 숫자대로 똑같은 숫자가 부쳐져 있는 가야금 줄을 뜯자 거짓말처럼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온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서투른 솜씨에도 자신이 직접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 동행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까지 연주에 동참하면서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가야금 체험 후 이어진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조은경(피리), 정겨운(해금), 최요셉(피리) 씨의 국악양상블 무대가 펼쳐졌다. 우리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곡, 민요,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고령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대가야'를 테마로 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지난 2009년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문을 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대가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대 가옥촌, 대가야 유물체험관, 가마터 체험관, 대가야 입체영상관 등 전시관에서부터 야외무대와 물놀이장, 탐방숲길, 펜션, 캠핑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평일 한적한 테마관광지를 돌아보며 도시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자연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대가야의 古都' 고령을 만날 수 있었던 2월 테마여행. 천년을 이어온 대가야의 숨결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천년을 이어온

대가야의 숨결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광수

박성희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회심곡 · 반야심경 · 축원 · 보림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늦가을에 두 번째 완창 무대 '수궁가 완창'을 계획해 놓고 저의 스승 전정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짐보따리를 싸서 선생님의 시골집, 해남 땅끝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공부(일상을 벗어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연습을 뜻하는 말)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심한 두통에다 온몸에 퍼지는 몸살 기운에 목소리가 도통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완창 무대를 몇 달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산공부 인 터라 반나절 이상을 그냥 참고 또 참으며 연습을 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더 이상은 인내, 극복이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 이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을 잔 것인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징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귓가에서 두 손으로 격렬히 두드리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려 몸을 움직여 봤지만 꿈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의식은 서서히 깨어나는 듯 그 소리에 한 없이 한 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마루에서 흘러나오는 선생님께서 틀어놓은 음반의 소리였습니다. 그 격렬한 북소리가 멀어지더니 명료한 종소리와 목탁소리와 함께 남자의 구음이 이어졌습니다. 숨을 멈추고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조심스런 성음에서부터 절규하는 듯 거침없이 질러내는 성음, 남도 선율과 경기 선율을 넘나드는 독특한 선율 진행에서부터 괴이하기까지 한 불협화음의 선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인간이 질러낼 수 있는, 표현해 낼 수 있는 모든 성음을 구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마력에 심하게 취해버렸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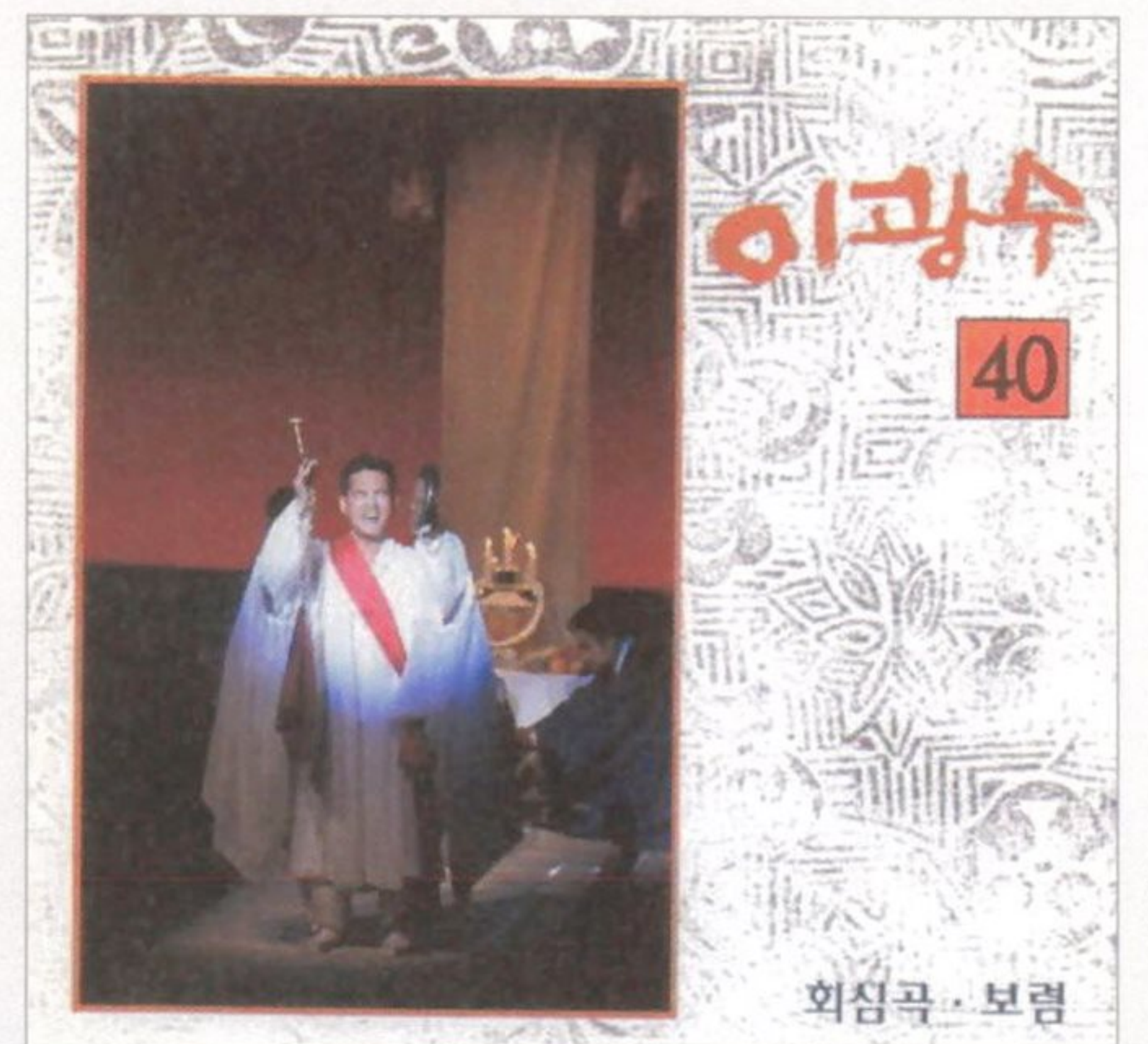
그야말로 무아지경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곤 거짓말 같이 두통과 몸살 기운이 씻은 듯 사라졌고, 마치 장중한 종교의식을 치러낸 듯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모습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경험들은 있으시죠? 한권의 책, 한 줄의 명언, 한편의 영화, 미술작품, 음악에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거나 크게는 인생관이 바뀌기까지도 하는 그런 경험... 저는 이광수 선생님의 음반을 통해 이 경험을 한셈이죠.

이광수 선생님의 음반 중에서도 '반야심경'의 구음과 '보림'의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예술적 감성이 종교의 장엄함과 신비함을 능가하는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뱃속까지 예술적 감성을 타고 나신 풍운아 이광수 선생님의 인생 약력에서도 조심스레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문연희패 일명 남사당패의 후손으로

여러 연희를 대가들로부터 사사하고 유년기, 청·장년기를 전국을 돌며 전통 예술공연을 통해 타고난 예술 감성에 탄탄한 예술 체험이 더해져 국악계에 손꼽히는 예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이 음반의 모태가 되었던 다년간의 사찰 생활에서 수련된 이광수 선생님의 불가(佛家)의 음악세계는 감히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대부분의 예술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의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당시는 예술에 대한 인식, 더구나 전문 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시대였지요.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감당할 수 없는 예술적 감성과 진정한 예술가라면 한번쯤 찾아오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상황들은 선생님을 유혹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예술가의 삶속에서 잉태된 예술이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어찌면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예술은 삶에 지친 인간을 무아지경에서 무릉도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나아가 우리를 지치게 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아~ 예술의 힘!



지 / 난 / 호 / 정 / 답

임	동	혁	토	요	상	설	무	대
편	목	월	춘	량				
수	제	천	회	심	곡	수		
목		닥			수	전	노	
화	개	장	터		황		벨	
그	지	킬	앤	하	이	드		
입	요	바				가	곡	
춘	향	고				이	차	
적	도	나	홀	로	집	에		
입	봉	비	목		트	설		

2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은희(부산진구 양정동)
초대권 신분주(양산시 물금읍)
 이두레(사하구 구평동)
 박정완(해운대구 채송동)
 한정아(연제구 거제3동)

나랏소 김태진(연제구 연산4동)
식사권 남미희(해운대구 좌동)
 오여민(남구 대연3동)
 이유진(부산진구 개금3동)
 장미정(금정구 구서동)

조은극장 강진미(금정구 장전동)
초대권 박미정(사하구 당리동)
 배지향(부산진구 개금동)
 전금주(연제구 거제3동)
 한미정(서구 토성동)

큰집 김귀희(부산진구 연지동)
식사권 김성희(동래구 온천3동)
 김연숙(중구 중앙동)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박선재(사상구 주례2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가로열쇠]

- 1975년 사이공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의 철수가 시작 되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미군과 젊은 베트남 여인의 비극적 러브 스토리를 그린 뮤지컬. 4월 5일부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전 우주를 넘나드는 대서사시적 스토리와 '이모션 캡처' 라는 눈부신 CG 기술력이 탄생시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09 년도 영화.
-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 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 000증후 군. 2011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을 모티브로 한 TV 드라마 '미스 000'가 방영되기도 했다.
-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 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일컫는 말.
- 페루 남부 쿠스코시(市)의 북서쪽 우루밤바 계곡에 있는 잉 카 유적. '나이 든 봉우리'는 뜻으로, 산자락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공중도시'라고도 불린다.
-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의 향기 또는 이를 사용하기 편리하 도록 정유(精油) 상태로 가공한 방향(芳香) 물질.
- 불교에서 행하는 큰절의 형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 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기 때문에 부처진 이름이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이한 짐승. 머리는 사자, 몸통은 양, 꼬리는 뱀 또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불을 내뿜는다고 한다.
- 작자, 연대 미상의 조선시대 고대소설의 주인공. 실제 인물 로 종종 때 서울에서 미관말직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송도에 은거하며 도술가(道術家)로 널리 알려졌다. 백성을 현혹시켰다 는 죄로 옥사했는데 뒤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보니 시체 없이 빈 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 불국사와 석굴암이 자리한 경주의 진산(鎭山).
-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지중해에 면한 아랍계 나라. 프랑 스의 식민지였으나 8년간의 격렬한 전쟁 끝에 1962년 독립을 이루었다. 수단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큰 나라로, 사하 라 사막이 전 국토의 85%를 차지한다.
- 최고의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뮤지컬배우이자 영화배우. 최 근 야구선수 최동원, 선동열의 치열했던 맞대결을 그린 영화 '퍼펙트게임'에서 최동원 역을 맡았으며, 현재 뮤지컬 '닥터지 바고'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속이 빈 대롱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 기.
- 바둑과 같이 흑백의 돌로 바둑판 선상에 세로, 가로, 대각 선 어느 쪽으로나 먼저 5개를 나란히 놓는 사람이 이기는 바 둑놀이.
- 스와니 강, 금발의 제니, 오 스잔나, 울드 블랙 조 등 우리 에게도 친숙한 가곡을 작곡한 '미국민요의 아버지'
- 이슬람 세계에서 가까운 친척 이외의 일반 남자들의 출입 이 금지된 장소. 보통 궁궐 내의 후궁이나 가정의 내실을 가리 킨다.
-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세로열쇠]

- 라트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특히 우리나라 첼리 스트 장한나를 세계 무대에 알렸으며 한국 가곡을 레코딩하는 등 한국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장이모 감독의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데뷔한 후 '패왕별 희' '게이샤의 추억' '한니발 라이징' '황후화' 등 다양한 영 화에 출연해온 중국의 영화배우.
-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 락의 독창곡.
-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 한이 왕비 Mumtaz Mahal을 추모하여 지은 건축물로, 1983년 유 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인 김정희가 창안한 서체.
-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교착전이 한 창이던 동부전선 최전방 애록고지를 배경으로, 한국전쟁의 마 지막 날,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장훈 감독 의 2011년 영화.
- 16세기 무렵에 로마에서 시작한 종교 음악으로, 오페라의 요소를 가미한 중창, 합창, 관현악으로 연주한다. 특히 헨델, 하이든의 작품이 유명하다.
- 대담한 화성을 구사하고 극적 효과가 높은 오페라를 작곡 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대표작으로 '마농 레스코' '라보엠' '토 스키' '나비부인' 등이 있다.
- 경북 봉화 산골의 노인 부부와 그들이 키우는 나이 먹은 일 소의 마지막 몇 년간의 생활을 담은 이충렬 감독의 다큐멘터 리 독립영화.
-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 형태의 하나. 느린 장단에 서 빠른 장단으로 배열된 3~6개 장단 구성에 반드시 장구 반 주가 따른다.
- 하와이에서 쓰이는 인사말.
- 1억 4000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대. 1998년 3월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 정되어 국제적인 습지가 되었다.
-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영국의 소설가인 J.M.배리의 동 화 속 주인공. 영화와 애니메이션,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아욱과(科)에 속한 한해살이풀. 씨의 솜털을 모아서 솜을 만 들고, 씨를 짜서 기름을 얻는다.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레이디스 필 하모니 정기연주회

레이디스 필의 공연...공연장이 너무 추웠지만, 현악 선율이 아기자기하고 감미로웠습니다. 연주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솔로리스트인 것 같다가, 함께 호흡하고 앙상블을 펼치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레이디스필 앙상블 화이팅!

-남시현(수영구 남천동)

철수와 영화를 위한 콘서트

연극을 보는 2시간 내내, 고유대명사 '영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왔다. 무지는 죄악이고, 무식은 폭력이라는 연극 중의 대사가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연극 중 나왔던 많은 사회적 이슈를 떠올린다.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다른 곳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었다. 꿈이 없는 10대, 긍정적 자극이 필요한 20대, 현실에 안주해버린 기성세대. 모두에게 추천하는 그런 연극이다.

-김미라(중구 광복동2가)

악기가족 이야기

뿌로로가 웃음 짓던 무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과 공연, 그리고 체험까지! 그 속에서 한껏 즐거워하던 39개월 된 딸 아이. 처음 만나는 클래식음악은 그렇게 딸아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혜진(양산시 정관면)

연극 '바라바라' 시즌2

드디어 '바라바라'를 보고 왔어요. 시작부터 빵빵 터졌어요. 허둥 9단의 애드립 센스! 내용도 재밌지만 중간 중간 애드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_^ 일상에서 지친 피로가 싹~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연출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용을 길게 이어가기 보다 조금씩 끊어서 보여줘 지루한 걸 막아 주더라고요.

-이예슬(중구 광복동1가)

임동혁 피아노 독주회

국내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라 더욱 기다렸던 공연. 폭발적인 연주력과 열정적인 무대매너, 아! 역시 임동혁이라는 탄사가 절로 나온다. 본 공연 못지않은 앵콜무대는 임동혁 연주회를 보는 또다른 즐거움. 그의 또다른 10년이 기대된다.

-김정희(연제구 연산4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곰탕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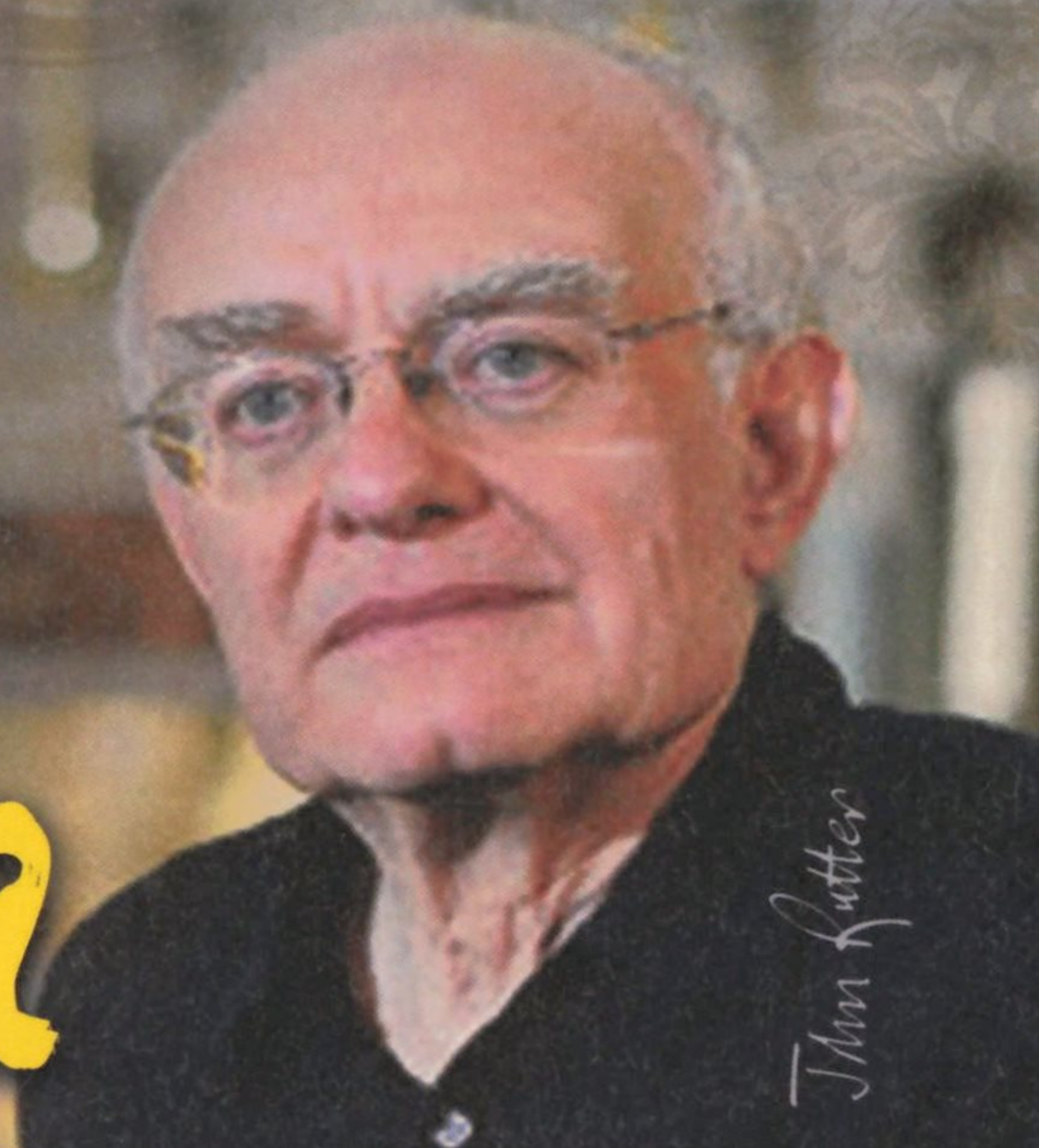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는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John Rutter **Gloria**



John Rutter



프로그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봄노래 모음(이영조 곡) 지휘 전상철
· 엄마야 누나야 강변강자 · 비단안개 · 사계의 노래
 - 특별출연 바리톤 최상재
· 명태 - 변훈곡 ·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Come paride vezzoso(잘 생긴 파리스가 했던 방법과 같이)"
 -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마원휘
· Tantum ergo - L. Vieme곡 · 두꺼비 - 전래동요/이진실편 · Gloria - 이호준편 · 리데츠키행진곡 - J. Strauss곡
· 들장미 소녀 - 마상원 곡/이호준편 · Sing sing sing - Louis Prima 곡 / Philip Kern 편
 - John Rutter "Gloria" 지휘 전상철 반주 오르간 이혜영
· 1악장 Allegro vivace · 2악장 Andante · 3악장 Vivace e ritmico
- 반주: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바리톤 최상재



지휘 마원휘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2. 3. 24 (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1,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12. 3. 30(금)19:30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2005년 서울대 교수를 사임하고 뉴욕으로 건너간지 7년째,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뉴욕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12월, 링컨센터 독주회 전석 매진으로 열매 맺다!

“백혜선은 열정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피아니스트로서 악보상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가장 최소한의 하찮은 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자신을 음악 앞에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음악 속 드라마의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낸다. 오늘 백혜선은 리스트와 슈만이 한국인으로 착각될 만큼 마치 모국어로 표현하듯 탁월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낭만음악을 들려주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이름은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하며 백혜선의 연주회라면 꼭 가봐야 할 음악회”
도널드 아이슬러 <클래시컬뮤직가이드포럼>

도전
그리
고
자유

프랑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드뷔시 & 메시앙
절제된 감성 베토벤 소나타 31번
詩적인 쇼팽 프렐류드 전곡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2012. 3. 21.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hoto Credit- 라미

HAESUN PAIK PIANO RECITAL Debussy_영상, Messiaen_비둘기, 피꼬리, Beethoven_소나타 31번, Chopin_24개 전주곡 전곡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예매 인터파크 BS 팝부산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arts.com



2012년 3월 공연일정

2012
March 3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전시일정</p> <p>제 6회 가마역빛전-대전사실 3월 10일(토)~3월 13일(화) 김영희(016-775-7226)</p> <p>제 30회 대한민국 서예대전·대한민국 미술대상전-대전, 중전사실 3월 24일(토)~3월 26일(월) 전국서화예술인협회(852-7456)</p>	<p>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인천시립극단 '험릿'</p> 			01	02	03
<p>04</p> <p>제 6회 작은거위들의 합창 15:00 초대 / 이정미(010-8544-2580)</p>	05	06	07	08	09	10
			<p>독일 뉴 필하모니아 합부르크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코리아뮤지카(02-2277-6516)</p>	<p>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창단연주회 19:30 초대 / 김동호(888-3771)</p> <p>부산시립극단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소설낭독-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11:30 희곡낭독-안녕, 엄마 19:30 균일 7천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신춘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YMD 윈드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 / 김기룡(010-3496-4445)</p> <p>부산시립극단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소설낭독-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11:30 희곡낭독-안녕, 엄마 19:30 균일 7천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화이트데이 아르크 콘서트 송영훈 & 김정원 - Fall in Chopin 17:00 6만원 · 4만원 · 3만원 더 스톱프(02-2658-3546)</p> <p>부산시립극단 '낭독의 숲-배우와 함께 거닐다' 희곡낭독-안녕, 엄마 15:00 균일 7천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p> 	12	13	14	15	16	17
		<p>부산시립합창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나영수)와의 만남 '우리의 노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1993-2012 재창단 기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 13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임병원(663-4900, 010-8533-4917)</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 '이치현과 벗님들' 20:00 균일 3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7)</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 / 부산문화회관(607-6056)</p>
18	19	20	21	22	23	24
	<p>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6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2만원 · 1만원 / UKO(011-589-3111)</p> <p>서은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부산음악사랑회 제 7회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 / 부산음악사랑회(011-885-6800)</p>	<p>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19:30 7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1회 정기연주회 '2012 신춘음악회-국악, 봄을 품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제 34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애창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 / 양승엽(010-7767-439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7회 정기연주회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II) '프로코피에프 Symphony V'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Amoroso(아모로제) 창단연주회 19:30 초대 / 이현정(010-3868-2808)</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John Rutter의 Gloria' 17:00 균일 1천원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부산로스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 이승아(010-6432-0821)</p> <p>토요상설무대 - 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선착순) / 부산문화회관(601-6056)</p>
25	26	27	28	29	30	31
<p>테너 김상곤 교수 독창회 19:00 균일 3만원 / 모티브블래닝(02-543-7352)</p> <p>제 16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4:30 초대 / 황명숙(011-9324-8149)</p>	<p>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 33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40회 정기연주회 '조르주 비제' 19:30 균일 2천원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한국리트협회 부산 경남지부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 이정희(010-7323-7645)</p>		<p>제 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9:3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505-6197)</p>	<p>제 30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인천시립극단 '험릿' 17:00 3만원 · 1만 5천원 /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제 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9:3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505-6197)</p>	<p>제 30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인천시립극단 '험릿' 17:00 3만원 · 1만 5천원 /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제 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7:0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505-6197)</p>

March 2012 Program Guide

2012
March **3**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Exhibition Hall</p> <p>The 6th Korean Painting Exhibition Main Exhibition 3.10(Sat)-3.13(Tue) Kim Younghee(016-775-7226)</p> <p>Korea Calligraphy Exhibition Main, Middle Exhibition 3.24(Sat)-3.26(Mon) Park Hyoduck(852-7456)</p>	<p>Hamlet</p>			01	02	03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04	05	06	07	08	09	10
<p>The 6th Ocarina Ensemble & Solist festival 15:00 Invitation / Korea Ocarina(515-0528)</p>			<p>Visit Korea to Philharmonia Hamburg Orchestra Concert 19:30 ₩70,000 / 50,000 / 30,000 / 20,000 Korea Musical(02-2277-6516)</p>	<p>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Employee Chorus Foundation Concert 19:30 Invitation / Kim Dongho(888-3771)</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Special Performance 11:30, 19:30 ₩7,000 / B.M.T.C(607-3151-2)</p>	<p>The 2012nd Early Spring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19:30 ₩10,000 / 7,000 / 5,000 / B.P.O(607-3111-3)</p> <p>The 2nd YMD Orchestra Concert 19:30 Invitation / Kim Giyul(010-3496-4445)</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Special Performance 11:30, 19:30 ₩7,000 / B.M.T.C(607-3151-2)</p>	<p>White Day ARTS Concert-Fall in Chopin 17:00 ₩60,000 / 40,000 / 30,000 The Stomp(02-2658-3546)</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Special Performance 15:00 ₩7,000 / B.M.T.C(607-3151-2)</p>
<p>Early Spring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p>	12	13	14	15	16	17
		<p>The 141st Regular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 / 7,000 / 5,000 / B.M.C(607-3141-2)</p>		<p>The 13rd Regular Busan Chamber Orchestra Concert 19:30 ₩30,000 / 20,000 / 10,000 Lim Byungwon(663-4900, 010-8533-4917)</p>	<p>The 12nd Early Spring Concert 19:30 Busan music Society(010-6505-5689)</p> <p>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part2 'Singer Lee Chihyun with friend' 20:00 ₩30,000 / B.C.C(607-6057)</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18	19	20	21	22	23	24
	<p>The 26th Rrgular United Korean Orchestra Concert 19:30 ₩20,000 / 10,000 / Joung HeeJa(011-5891-3111)</p> <p>Seo Ena Violin Recital 19:30 ₩20,000 / 10,000 / Artbankkorea(442-1941)</p>	<p>Busan Music Orchestra Concert 19:30 Invitation / Busan Music Love (011-885-6600)</p>	<p>Back Haesun Piano Recital 19:30 ₩70,000 / 50,000 / 40,000 / 30,000 Busan Arts Management (740-5833)</p>	<p>The 161st Early Spring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Concert 19:30 ₩10,000 / 7,000 / 5,000 / B.M.T.O(607-3121-2)</p> <p>The 34th Italy Music Society Regular Concert 19:30 ₩10,000 / Yang Sengyup(010-7767-4390)</p>	<p>The 477th Regular Busan Philharmonic Concert 19:30 ₩10,000 / 7,000 / 5,000 / B.P.O(607-3111-3)</p> <p>Amorose Foundation Concert 19:30 Invitation / Lee Huyjung(868-2808)</p>	<p>The 135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Concert 17:00 ₩1,000 / B.M.Y.C(607-3161-2)</p> <p>The 9th Regular Busan Melos Orchestra Concert 18:00 Invitation / Lee Seongal(010-6432-0821)</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25	26	27	28	29	30	31
<p>Tenor Kim Sang Gon Concert 19:00 ₩30,000 / Motive playing(02-543-7352)</p> <p>The 16th Busan Woneum Chorus Concert 14:30 Invitation / Hwang Myeongsuk(011-9324-8149)</p>	<p>The 34th Busan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19:30 ₩30,000 / 20,000 / 10,000 Busan Symphony Orchestral(621-4577)</p>	<p>The 40th Regular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concert 'Georges Bizet' 19:30 ₩2,000 / B.P.O(607-3111-3)</p> <p>Korea Liszt Society Busan Kyungnam City the Liszt Regular Concert 19:30 Free / Lee Joungwa(010-7323-7645)</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Freedom Participation Piece 'Let's go Travel' 19:30 ₩15,000 Double Stage Theater Company(505-6197)</p>	<p>[Opening]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Celebration Concert 'Hamlet' 19:00 ₩30,000 / 15,000 Busan Theater Society(645-3759)</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Freedom Participation Piece 'Let's go Travel' 19:30 ₩15,000 Double Stage Theater Company(505-6197)</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Celebration Concert 'Hamlet' 17:00 ₩30,000 / 15,000 Busan Theater Society(645-3759)</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Freedom Participation Piece 'Let's go Travel' 17:00 ₩15,000 Double Stage Theater Company(505-6197)</p>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해
우
화
공
부
의
숲

3. 8 - 9 오전 11시 30분

박완서 단편소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강애심 낭독, 성기웅 연출

함
께

3. 8 - 9 오후 7시 30분 / 3. 10 오후 3시

희곡 낭독 “안녕, 엄마”
나카이 아이 원작, 박혜성 번역, 성기웅 연출

거
니
고
다

2012년 3월 8일(목) ~ 10일(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부산시립극단 051)607-3151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관람료 | 균일 7,000원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 대연 지하철역 6번출구 월~금 19:00시 출발 ▶ 부산문화회관 (요금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경주 남산

2012년 4월 13일(금) 경주 남산

신라인들이 남산 바위 속 부처님을 찾아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산재해있는 경주 남산. 왕릉 13기, 산성지(山城址) 4개소, 사지(寺址) 147개소, 불상 118체, 탑 96기, 석등 22기, 연화대 19점 등 672점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노천박물관 남산으로 봄빛 기행을 떠난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09:30 경주 도착, 배리삼존불 · 삼릉 · 선각육존불 · 마애여래좌상
· 석조여래좌상 · 상선암 마애석가 여래좌상 · 용장사지 삼층석탑
· 용장사터 · 용장마을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성주 한개마을

2012년 5월 11일(금) 성주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참외의 본고장 성주 여행. 성산 이씨의 5백년이 넘는 집성촌 한개마을을 시작으로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등에서 성주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30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 ▶12:30 중식
- ▶13:30 한개마을 마을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MOZART

리셉션·식사·각종모임 단체전문 예약 80석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 622-1456

행니동기스 센텀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 747-824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코메디언극 바라바라 20% 할인



2012.1.13(금) - 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연극 청춘정담 30% 할인



2012.3.2(금)-4.1(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일요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공간소극장
▶ 문의 및 예매: 611-8518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7

좋아서 하는 밴드

2012.4.20(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2.concert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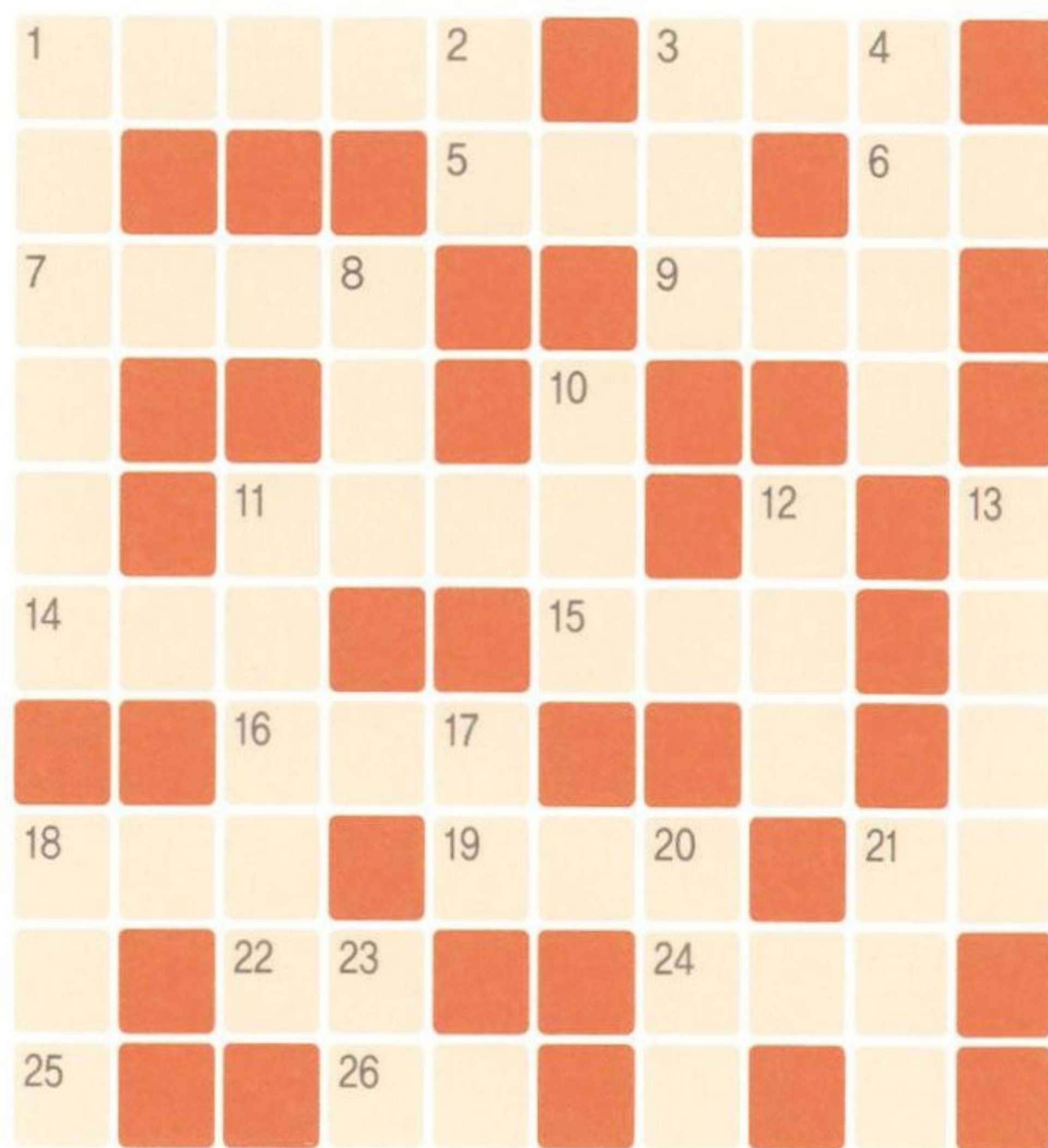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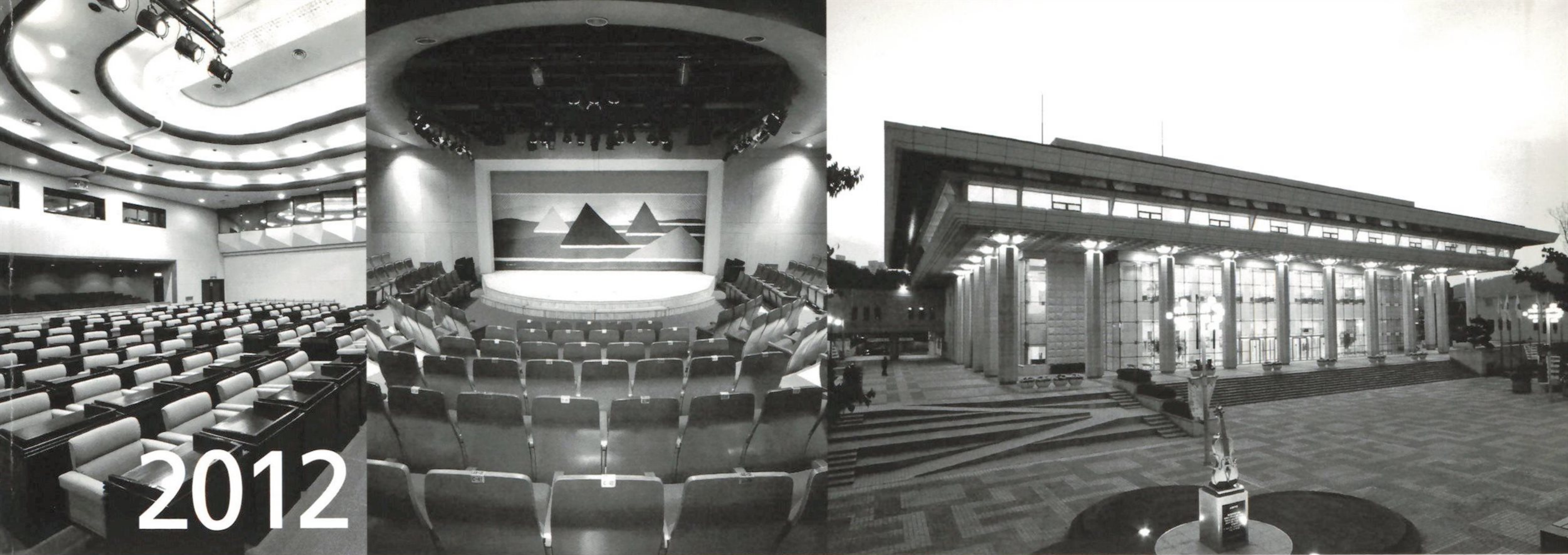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값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값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2012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극장(대극장, 중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관내용

대관기간 2012. 7. 1 ~ 2012. 12. 31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 접수 상담 시 안내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 접수 상담 시 안내

접수기간 2012. 3. 12(월) ~ 3. 23(금), 2주간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제외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6051~6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KCMI, INC. PRESENTS
CAMERON MACKINTOSH'S
PRODUCTION OF
BOUBLIL & SCHÖNBERG'S
LEGENDARY

**MISS
Saigon**

TM ©1988 CML

2012년 4월 5일 ~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3:00, 7:30 / 일요일 오후 2:00, 6:30

4월 11일(선거일) 오후 3:00 / 월요일 공연 없습니다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 문의 | 1599-1980 goconcert.co.kr

주최 | 부산광역시 KNN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 예술기획성우 제작 | (주) 예술기획성우 KCMI